

공통적인 언어를, 플랫폼, 퍼져
각종/각종 플랫폼

기다려다 미쳐!!

내가 사랑하는

표정 & 원재 "그대를 믿지마세요"

김효정(29) ---- 융합병원 물리치료사. 원재보다는 사랑을 꿈꾸는 로맨티스트.
 박원재(23) ---- 효정보다 여섯 살 어린 남자친구.
 재원 ---- 효정과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레지던트. 보람의 오빠.
 원준 ---- 동포 물리치료사.

진아 & 은석 "내 마음 나도 몰라"

강진아(21) ---- 생물학과 2학년. 준수하고 생기발랄한 대학생.
 정은석(21) ---- 진아의 동갑내기 남자친구.
 기원 ---- 진아, 은석 커플과 허물없이 지내는 친한 친구.
 경숙 ---- 진아의 학교 동기.

보람 & 민철 "나도 여자랍니다"

남보람(22) ---- 인디밴드의 건반주자.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민철을 짝사랑한다.
 서민철(26) ---- 밴드의 리더. 기타리스트.
 민나 ---- 밴드의 보컬. 화려하고 화려 자시공간이 넘치는 보람의 연적.
 민서 ---- 녀석출공 드러머.
 희범 ---- 과묵한 베이시스트.

미영 & 능 "조국이 원망스럽다"

조미영(18) ---- 여고2학년. 부사 소녀. 원위 재치 않고 원하는 건 일단 가지고 본다.
 능(22) ---- 미영의 애인. 동거남. 나이트클럽 빼끼.
 흥신 ---- 미영의 새 남자. 순진한 대학생.

예뻐?

들은 전젠 안 겪은 애 없지. 면제가 켈 좋아. 다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 문익은 어서 죽어들은 애기, 지 애기처럼 떠들고 앉았지. 켈역 애
고 큰대 애기 시작하면, 사람 룰어요. 해별대는 맨날 지 뽕먹은 애기하
아, 똑같은나니까. 내가 산군름 다 사귀어왔는데, 면제가 켈 나아. 켈며

C# 변장문신

하지 않아요?

우리 오빠는 해군 잤는데요. (한머시 웃음 새는) ...해군 웃 너무 썩시

C# 홀범문신

저는 그냥... (만찮이는) ...

C# 그림

뭘 맨날 애인 생각 하는 줄 알아요?

다른 거 없어요. 2년 버티내려면, 일단 마빠야 돼. 큰마리들이 우리쳐

C# 변장문신

거, 잠깐이야.

찾아갔었어요. 뒷모습이 그놈이 그놈이라 찾지는 못했지만... 근데 그
아이구, 누구는 안 해봤어요? 난 일요일 아침에, 개네 부대 교회에도

C# 식범문신

그런 편지랑 같이 읽어줘요. 면제 하면 켈때 표시 안 나요.

편 있었어요, 림때로 이렇게 읽어서 없게 띄요. 그림 남작해지않아요.

C# 진아

하고 싶고...

있을 때나 휴가됐을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오빠한테 당장 전화
잠은 잘 자요. 음, 근데 뭐랄까, 할 일이 없어졌을 때... 전철에 앉아

C# 림범문신

표구 그림 받은 그냥 잠 잤는데, 그 다음날 밤부터...

처음엔 그게 뭐 별건가 했어요. 누구나 가는 거니까. 근데 업소하는 거

C# 홀범문신

이후 림은 장소에 사람들이 만 마짜며 연속되는 점프컷.

미디어샷 점도로, 화면을 바라보고 말하는 여자.

S# 1. 생과림 요거트 진공접 / 냐

결혼하자구!

원재

원재?

원재

결혼하자구 원재!

원재

시내를 달리는 원재의 스쿠터.
뒷자리에 탄 원재의 허리를 꼭 껴안는다.

S# 2. 거리 / 해진 무렵

클럽에서 공연하는 밴드 음악 선행하면서 F.I
타이를 시퀀스 시작된다. (S# 2C까지 음악 계속 이어진다)

“기다리다 미쳐”

화면 가득 몽롱함을.
근심 가득한 영혼들이, 모두 자기만의 미소로 서서히 밝게 웃는다.
타이를 웃는다.

이젠가나 원만, (원크) 기다리자구요.

C# 사별문신

(순만 비를 그리는) ...

C# 보람

(건들건들) 기다리지, 장난해요? 그 동안 기다리다 바뀐 소포장이 없는데, 뭘
를 뽐내어야지, 가진 것 같아.

C# 변장문신

(고개 절레절레) 원만 안 좋아, 아무선 거꾸로 안 신게 하려면
가 차원에서 군인한테 표양식 좀 지킴하든지 만야.

C# 사별문신

연희 오빠 기다려야죠. (웃는)

기다리죠, 볼볼, 뽀, 원만이랑 원만이랑 나 때문에 싸우지 않는 한, 만

C# 원만문신

아이씨, 물러

비망

그러니까 여 있으려 안하나. 내 룡 때까지.

능

죄에 안 들어간다. 오빠야가 내 책인진다 했잖아.

비망

그러면 죄에 들어가든가.

능

(음물이 그렇으면) 내 혼자 여 어떻게 상관관연이래?

비망

타자 위에 녹인 인연을 올리시러.

S# 2A. 능의 진 / 망

(웃으며) 아, 원원히 가.

표정

차선릉 넘으며 속도를 틀리는 원재.

나 근화 간수나 환 해.

표정

정만 고무신 겨꾸르 신기만 해.

원재

너무 타이트한 스캐를 아나야?

표정

지?

관응이 뭐 이래? 지금 나 진지하단 말야. 내가 계획 다 세웠어. 첫 부
가 나오면 약혼식 올리고, 1년 뒤에는 혼인신고 하는 거야. 어때? 좋
을

원재

(응는) 생각해 볼게.

표정

행복의 원기로 가능한 클럽 안, 무대 위에서 그는 민철의 밴드가 공연 중이다.
미아크를 잡고 형적적으로 노래하는 한다.
간주가 나오고 멘트를 하는 한다.

S# 2C. 흥대 클럽

공석을 포근하게 감싸안은 진아.

맨날 집에만 있지 란구, 기왕이 불러서 불러가고 그래, 안왔지?

공석

(웃는)

진아

혀를 깨물어. 앙~

공석

(멍지 않게 췌려보는) 바람피라구?

진아

후시라도 편생각 들면... 딱 한번만, 아주 딱 한번만...
그러게 췌아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공석

너 없으면 어떡해 나?

진아

공석을 보는 진아.

자기가 건강하게 된 것다와 말라부~♡ 05. 10. 6'

진아와 공석, 둘만의 포식으로 가득한 그곳에 귀여운 그림을 그려놓는 진아.
담벼락과 의류수거함 따위로 가려진, 문동림에서 참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공간.
다세대 빌라 문동.

S# 2B. 진아의 집 문동 / 밤

벽을 보고 드러내는 미아.

를 미쳐야지, 어디로 갈까?

한나

...를 세 큰

를

표본이, 민첩이 한나를 이종리? 아니?

우선

야 장난 그만해.

민

(웃으며) 야 네를 사귀는 거 아냐?

우선

민첩의 표정을 수피는 보람.

(웃으며) 2년 동안 독수공방하기 했다 난.

한나

야 한나야, 너 민첩이 기다려줘야 돼.

우선

너스레를 떠는 우선.

악기를 돌려보고 나오는 밴드 팀원을.

S# 3. 클럽 / 밤

연주를 하다가 민첩을 본다.

민을 앵다물고 마치 시험 공부하듯 열심히 건반을 치고 있는 보람.

무어지경의 베이스 화법과 드러머 우선.

다시 환호하는 관객들.

무대 중심으로 나아가서 기타를 연주하는 민첩. 화려한 손놀림.

관객들의 아쉬운 환성.

모든 공연을 끝으로 우리 밴드의 리드 기타 민첩이가 군대를 갑니다.

한나

리면서 참아야지.

에이 씨마 내가 그리 무척하게 하라 카드나. 버리잖음 이렇게 틀어롱

봉

판판 자르라매

비망

래 하마 우짜노.

(거롱음 비춰보며) 그렇지 그렇게. 어어, 아야야, 아 나 틀어빠졌네. 그

봉

봉이 그리키근 대로 썬머리에 버리잖음 틀어대는 비망.

편어봐.

곤바리 머리 고민한 거 뭐 있노, 그야 쉽게 지근 되지. 이쪽부터 판판
(거롱음 비춰보는) 뭐이고 이기. 한 시간 동안 이거 자를 기가?

봉

비망, 손거롱음 천어서 건넌다.

지랄하네. 거롱 어데 있노? 거롱 도마.

봉

오빠야 머리 이상하다. 내는 똑바로 봤는데 자꾸 빼들다.

비망

무슨 머리를 씨마 하루 웅얼 짜르나. 궁디에 딱딱 나겠다.

봉

가만히 풀 있어라.

비망

편었나?

봉

머리깡으로 봉의 머리를 찰라주고 있는 비망.

보자기를 목에 두르고 앉아 있는 봉.

S# 4. 봉의 집 / 날

이제 그만... 제대할 때...
예전에는 공군에 갔어.

원주

사구를 다 따라간다는데 만약에 거진 어떻게 가?

표정

그렇게 신경쓰이면서 왜 안 따라가셨나?

원주

행복이 머리는 지킴을 손가락으로 짚어 인후에 바른다.
행복은 만지작거리고 있는 표정.
할 수 없다는 듯 혀를 차는 원주, 표정 앞에 커피를 내려놓고 않는다.

(다 죽어가는 소리로 좌우정하는) 아... 풀 났네.

재현

원어나시지. 여기가 레지를 숙순 돌 아시나? 우리 환자 받아야 돼.

원주

표정이 듣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연영철 아에서,
원주, 커피를 들고 공다가 치포대 위에 쪼그려 자는 재현(레지던트)를 보고 바로 돌아간다.

7. 물리치료실 / 낮

곡물을 찍어내는 의미를 간사는 원재. 하지만 곡으로 가는 계속 주위를 돌아본다.

그렇지 뭐.

원재

안만 봐도 우리 아들이 쉰 나네.

원재모

근처, 가족들과 함께 있는 원재. 연신 주위를 돌아본다.

뉘워. 머리가 아프지.

원주

한나도 공다가 하지 않았어?

대형과 팀원을, 인소 시간이 압박해서 다소 가려받은 분위기이다.

S# 8. 의정부 306보충대 / 낮

못 들어주겠다는 듯 외면하며 자리를 떠나는 현준.

(잔디스택) 원재야, 단 공리 유~

표정

그거 만구 자기 만야.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피롱 것 관단 만야.

원재(ㄷ)

만들 다 가는 건데 뭘 그래. 격정하지 마.

표정

근데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원재(ㄷ)

안았어.

표정

겨.

어. 정신은? 또 쥘라면 머지 뭐고 뭘 보여. 영양보충 안하면 기미 생

원재(ㄷ)

(만가공) 응? 어... 일하지. 뭐 도화했어?

표정

뭘해?

원재(ㄷ)

(전화하는) 여보세요.

표정

그때 표정이 왜드문이었어. 무슨 표정.

(불기며) 구. 선. 생

표정

아이

를아관 때 출롱 거야 인고 가.

공셔

서로 아색하게 음를 쳐주는 기성과 은셔, 둘 다 믿어 없다. 인고 인던 잠버를 벗어서 진아어 아개에 권쳐준다.

손을 훌훌 털어 놓을 때 내는 비양. 턱뽕 울음 공관 곡뽕이 그윽그윽한다. 미지마므로 부머똥께 권쥬를 녀셔를도 보이다.

그 어중에도 사자편느라 바뻐 가족들과 연인들이 있고, 사형내 항으로 모여드는 인스자들.

츙츙히 돌아서서 가는 민훤의 뒷모습.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뿜어지는 보람.

(민훤이 민훤을 바라보는) ...

보람

(보자를 벗어 보람에게 띄워주는) 조선해서 돌아가.

민훤

고생해라.

우성

가야겠다.

민훤

랜드공릉 건너주는 보람. 전화를 거는 민훤, 그러나 신호가 가도 받지 않는다. 이때, 인스자를 모이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온다. 룬더를 던지고 랜드공릉 물려주는 민훤.

전화 잘 쓰자.

민훤

네?

보람

보람아.

민훤

S# 10. 물리치프실 / 닉

(물쩍거리는) 렌즈가 빠져서...

진아

뭘 찾아오?

모람

모람의 린 근처 버터를 샀다는 진아.
 진아, 물쩍이며 린이 나서 린가를 찾는다.
 한편, 비양은 녹화장을 고치고 있고, 그 앞에 앉은 진아는 흐느껴 울고 있다.
 제형 윗층에 '한나안나'라고 적혀 있다. 모람, 모다가 린가를 단는다.
 핸드폰 린가를 열어 최근동화기록을 보는 모람.
 같은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진아, 모람, 비양.

S# 9. 버스 안 (이동) / 닉

진아의 몸을 한번 껴안고, 연병장에 모여든 우리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공석.
 그 모습을 어렵하게 바라보는 진아. 진아를 가만히 감싸는 기성.

간다.

공석

그래, 걱정 마.

기성

(기성에게) 진아 한 부탁한다.
 (공석을 뛰어넘어) 오를만 봐준다. 나 없이 혼자서는 못지 마.

공석

(순간 잠았던 공물이 주르륵 흐른다) 미안해. 안 용려고 했는데...

진아

난 이제 공부 들어가야지.

공석

...던?

천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진아.
 우체부 오토바이가 나타나자 반가운 표정으로 힘어낸다.
 각 호수에 우편물을 넣는 우체부의 손을 잔뜩 기대하고 지켜보는 진아.
 그러나, 진아의 우편함으로 들어가는 편지는 한 올도 없다.
 실망하는 진아를 흘끗 쳐다보고 가는 우체부.

S# 13. 진아의 집 / 낮

공석이 벗어준 잠바를 덮고 잠든 진아.
 밤새 뚱이서 울을 부는 눈을 게슴조레 본다.
 부스스 일어나 앉는 진아.

S# 12. 진아의 집 / 아침

받은 전투화를 바라보는 은석. 뭐라 맘도 못하고 이동하는 중에 떠밀리고 만다.

270 읽어, 75 읽어, 다음!

군수계

저도 270입니다.

은석

(바스에서 전투화를 꺼내주는) 270 쿤, 다음, 너는?

군수계

270입니다.

원재

몇 미리?

군수계

좋은 서서 군복과 전투화 등 보급품을 지급받는 일소자들.

S# 11. 모충대 창고 앞 / 낮

훈자 기구를 사용하는 환자 옆에 서서, 물끄러미 창밖을 보는 효정.

현주

기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톨으로) 사랑의 힘으로 헤쳐 나갈

효정

기다려다 미치지 않으시겠나?

현주

무한 건 또 뭐 있어?

효정

기다려서 결혼하시게?

현주

오... 그렇~ 단 원제가 제대하면 결혼하세.

효정

미사지서, 효정의 두 뺨을 뒤로 힘껏 던기면서 스트레칭 한다.

그쪽은 사랑 응만하시겠어?

현주

나란히 누워 전신 미사지를 받고 있는 효정과 현주.

S# 15. 타이 미사지실 / 밤

양쪽에 한 자리씩 비워놓고 가운데 자리에 앉아있는 진아.
그때, 짙은 커튼 한 쌍이 진아 앞으로 와서 앞으로 한 칸 뽕겨달라는 단치를 준다.
빤이 꼬인 진아, 모를 척 한다.
왼쪽 진아 양쪽으로 앉는 커튼 댈녀, 진아를 사이에 두고 계속 탐참스런 수다를 연다.
진아 팔뚝로 손이 댈녀를며 점점 선기서서 구는 커튼 댈녀.
진아, 이에 룬하지 않고 산골을 뿔치며 커튼을 방해한다.

S# 14. 지하철 / 낮

덜덜 우편함을 열어보는 진아, 천막해서 힘이 빠져 나온다.
자막 : "공린범"

그러자 뒤를 한번 확 돌아 호신에게 살짝 눈빛을 보내는 노련한 비양.
 비양이 봐주지 않자, 침양해서 다른 데로 가려는 호신.
 벌써부터 못지 않지만, 괜히 못 본 척하며 친구들이랑 출차는 비양.
 그때, 세상 소란하게 생긴 남자, 호신이 자꾸 비양 옆으로 붙으며 막출을 준다.
 훔쳐가려는 남자들의 시선을 즐기는 비양.
 고등학생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도발적이고 관능적인 몸짓이다.
 시끄러운 음악과 현란한 사이키 조영 아래 친구들과 출름 주고 있는 비양.

S# 17. 나이트클럽 / 밤

(감탄하는) 오~ 쪼비양. 역시 끝비엔 클라리야.

단짠

교복 치마를 즐기며 즐기는 비양.
 치마 밑에 입은 초미니스커트를 보여준다.

보자.

단짠

함지. 언니 의자 함 비 주까?

비양

오를 끝나고 바로 가는 거 함제?

단짠

수돗가에서 대칼레를 뺏고 있는 비양과 단짠 친구.

S# 16. 학교 운동장 / 낮

(동시에)아오~

효정, 현준

마사지사들, 효정과 현준의 다리를 잡아당기면서 비를듯이 스트레칭한다.

아우, 언포맨택해.

효정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드라마틱한 거 좋아하지 마. 인생 피곤해져.

원재모

소포 사자를 뜯어놓고 노뿔바다를 이루고 있는 원재모. 어찌해야 할지 몰라 불편하게 앉아 있는 효정.

S# 19. 원재의 친구 / 님

연영진별소포'라고 적힌 박스를 보는 효정. 지나가는 동포 차포사들과 노인사를 나눈다.

S# 18. 물리치포신 판 창구 / 님

비영림에 추석이 든 호신, 비영림에서 죽고머니 름이진다. 심마한 판문포를 옮기키는 호신. 테이블 위에서 핸드폰을 가져오려는데, 영? 돌아보니 핸드폰이 없다. 돌아보니, 름새 호신의 핸드폰을 가져가 번호를 입려하고 있는 비영.

아무한테나 번호 양려주고 그러는 여자 아니거든요.

비영

저기... (핸드폰을 들이밀며) 폰번호 중 양려를 수 있어요...?

호신

(키웠다든 듯) 명를 만큼 먹었거든요.

비영

저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호신

다. 비영림에 름씩이 름어져 있어 있던 호신, 름를 문켜 삼키며 비영림으로 조식스럽게 다가온 오는 작업에만 름중하는 비영 름행들. 이런 름에 익숙한 듯, 님자들의 층과 안주를 썩썩 씹어먹으며, 서로 름체 상권하지 않고, 름어 름새 끼리끼리 눈이 맞았는지, 님녀가 적당히 섞여 앉았다. 님자를 테이블에서 함석해서 놓고 있는 비영 름행들.

Cut To

원안으로 들어서는 표정.
 아직 공기가 남아 있는 듯한 원재의 책상.
 책상 위의 물건들을 살펴보면 표정, 원재가 쓰던 스낵 두껍을 열여 향기를 맡아본다.
 원대에 쿼터없이 편안함을 물러보는 표정.
 옷장에 가지런히 옷이 걸려 있고, 벽에는 멋진 스포츠카 사진이 붙어 있다.
 사진을 뿜기다가 책상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표정.
 다가가서 꺼내보면 예쁜 산자 두 개가 나온다.
 산자들을 침대로 가져와서 열어보는 표정.
 옛 여자들과 찍은 사진과 편지들이 이틀별로 분류되어 빼곡히 정리되어 있다.
 사진을 넘겨보는 표정. 원재와 옛 여자들의 즐거웠던 한 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편지들을 꺼내보는 표정.
 온갖 유치찬란한 사랑의 편지가 쏟아지는 옛 여자들의 편지들.
 표정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온다.
 다른 편지를 읽으려다가 산자 바닥에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표정.
 꺼내보는 표정, 커를림이다. 그것도 하나 아닌 다섯 개씩이나.
 기가 막힌 표정.

(조신스런) 네, 잠깐만 볼게요.

표정

(떨떠름한 표정의) 지켜보한테, 들어가 물려면 들어가구...

원재모

원재 아무 꿈을 여는 원재모.

S# 20. 원재 밤 / 낮

립밤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술에 바르는 표정.
 산자에 있던 쪽지를 꺼내보는 원재모, 눈물을 흘리며 읽는다.
 글하게 쓴 듯 보이는 쪽지의 글씨,
 '엄마, 며느리감 이쁘지? 목욕탕도 같이 가고, 제사 때도 꼭 불러.'
 민망해 고개를 숙이는 표정.

(단정)

표정

아이구 내새끼... 신랄이 왜 한 짝 밖에 없어, 아이구후~

S# 21. 도서관 자료실 / 냅

책을 훑아놓고 자료를 정리하는 기성. 앞에 앉은 진아를 본다.
금석의 편지를 읽고 있는 진아.

금석(Na)

형아, 내 걱정하느라고 멘탈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거 아니지?
걱정하지 마. 근대 별거 없어.

S# 22. 훈련소 운동장

금석(Na)

내가 원래 어릴 거나 적응을 잘하잖아. 훈련 때도 내가 제일 FM이라
고 조교가 좋아해. 아무래도 단 근대가 체력인가봐.

금석의 나레이션 중에 보이는 것들.

C# : 연병장. 제식훈련 중 구령에 맞추어 일제히 뒤로 도는 훈련병들.

C# : 그러나 미처 돌지 못하고 한 발짝 더 나가는 금석.

C# : 숨을 헐떡이며 선착순 뺄뻔이 도는 금석과 훈련병들.

금석(Na)

여긴 운동기도 맑고 풍경도 깨끗하니까 몸이 막 건강해 지는 것 같애.

C# : 수돗가. 대중 비누칠하고 찬물을 끼얹는 금석, 원재, 목, 추워서 마를바를 띤다.

금석(Na)

그니까 너도 학교생활 잘 하구, 맘 약하게 먹지 말구, 아포지 마.
옆에 있으면 화 났을뻔해줄 테네.

C# : 막사 계단에 쪼그려 앉아 불뭉은 전투화를 닦는 금석, 민철, 원재.

C# : 점호 준비, 만함 뚜껑으로 관동대 각을 잡는 금석과 목.

금석(Na)

이 편지 받으려면 빨라야 할 것 같애, 알았지?

내무실, 편지를 쓰고 있는 금석.

편지지를 앞에 두고 머리를 끄덕이며 고민하던 목,
클릭클릭 소리가 금석의 편지를 들춰본다.

틀렸다고 볼게 아니라, 그렇게 볼게 아니라?

경숙

마음이 아파오는 건지, 편지를 가만히 품에 안는다.
책을 정리하는 카트를 밟고 나터난 경숙. 진아 하는 짓을 보곤,

~ 편지 한 편만 보든 편지 한 편만 보든 소원이 없겠다. 편지 열람, 편지 읽기,
읽어 볼 소리 모든 것이 너무 그리워. 완전 보고 싶다고 편지 써야.

은석(Na)

편지를 읽는 건지.

S# 23. 도서관 자판기 / 날

적 새끼는 내 바로 옆에 127번 자판기라는 문인데, 쿨물새끼 한 잔
고 문관이야. 어리버리하면서도 눈치는 또 얼마나 빠르지, 내가 잠시도 마
음물 봉봉 수가 없나니까.

은석

편지를 들고 민철의 옆으로 자리를 옮기는 목. 민철의 편지를 넘본다.
계속 편지를 써내려 가는 은석.

아 쪼잔한 새끼.

능

적리 가 새끼야. (어깨로 다부지게 편지를 가린다)

은석

너나 내나 한 거 똑같은데 뭘 보고 쓰면 또 어땠노? 권은 권우끼리.

능

지랄, 이게 시험이냐? 권너하개?

은석

뭘 보자.

능

(편지를 가리며) 뭘 봐?

은석

기분이 좋아 키득키득 웃으며 자판을 두드리는 진아.

(E) 경수문신 벌써 편지 와썬요??? 부럼당,,, ㅋㅋ
 원이민쭝 으ㅇㅇ ㅋㅋ 저는 언제나 받아보려나 ㅋㅋ
 밤이5쪽이 엇,, 저두 1사단 3중대 1소대에요~ 우리 친구하조!! ㅋㅋ

컴퓨터 앞에 앉아 채팅을 하는 진아.
 인터넷, '고무신카페'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들.

S# 24. 진아의 밤 / 밤

진아 기분이. 좋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누구?

경숙

진아 싹껏 봐라. 너 배만 아프지. (주위를 둘러보는) 근데 얘 어디 갔어?

진아

경숙 그래 강진아, 얼마나 가나 보자. (카드를 밟고 가는)

경숙

(웃는) 췌...

진아

경숙 (활판 없다) ...돈이라도 남잖아. 근대간 남자 기다리는 것보다는 생선
 적어야.

경숙

진아 그래서 너는, 다시 못 온다는 생의 황금기에, 허구원남 처벌해서 안바
 나 하고 있냐? 너 황준에 미안하지도 않냐?

진아

경숙 됐다. 다시 못 올 생의 황금기에, 겨우 남자에게나 열매여 있는 것을,
 진짜 이해 안가. 너 앞날에 미안하지도 않냐?

경숙

(편지 접어넣는) 부러우면 나도 연애해.

진아

우편함의 편지를 뒤적이는 보람.
멈춰하며 편지 한 통을 꺼내드는 보람. 군사우편이다.

S# 26. 배드연습관 / 낚

(리아내는) 나가 오빠.

보람

수상한데... 후시...

재현

(가르먹는) 그런 거 아냐.

보람

너 뭐야? 이상한 거 하고 있었지? 봐봐. (노트북을 열려고 하면)

재현

간짜 녹라서 노트북을 열는 보람.
뭘 안오를 틀어오는 재현.

야, 라면 먹고 싶지 않냐?

재현

그때, 밥공기를 튕겨 여는 재현.

웃던이공신 저누 아직 못 받았...

보람, 잠시 고민하다가 타이핑한다.

공석내꼬야 ~ ♡ 웃던이공신님은 편지 와세요?

노트북 채팅창.

S# 25. 보람의 집 / 밥

공석내꼬야 ~ ♡ 우아 ~ 소대까지 독 관네여.. 그럼 같이 출런받는 사람이겠져?? ~
공석내꼬야 ~ ♡ 웃던이공신님은 편지...

대령을 벗어나 표정에 게로 뛰아가는 원재.

(강경해사) 강호정!

원재

원재가 큰 울림의 뒤울수 사이로 드러나는 여자의 형문, 표정이다.
고개를 들어 원재. 한 여자가 큰 울림의 뒤울수 사이로 드러나는 여자의 형문, 표정이다.
원재가 큰 울림의 뒤울수 사이로 드러나는 여자의 형문, 표정이다.
원재가 큰 울림의 뒤울수 사이로 드러나는 여자의 형문, 표정이다.

S# 28. 울림소 원진 / 원

미소를 띄며 자리에 앉는 원재.
미소를 띄며 자리에 앉는 원재.

원재는...

원재

(원재가 웃으며) 원재... 원재?

원재

원재가 원재의 울림을 듣고 기타를 내려놓는다.
원재가 원재의 울림을 듣고 기타를 내려놓는다.
원재가 원재의 울림을 듣고 기타를 내려놓는다.
원재가 원재의 울림을 듣고 기타를 내려놓는다.

Cut To

원재의 울림을 듣고 기타를 내려놓는다.
원재의 울림을 듣고 기타를 내려놓는다.
원재의 울림을 듣고 기타를 내려놓는다.
원재의 울림을 듣고 기타를 내려놓는다.

S# 27. 울림소 원진 / 원

원재는 사람... 3중대 1소대 116번 울림소 원진 / 원은 사람... 울린다!
원재는 사람... 3중대 1소대 116번 울림소 원진 / 원은 사람... 울린다!
원재는 사람... 3중대 1소대 116번 울림소 원진 / 원은 사람... 울린다!
원재는 사람... 3중대 1소대 116번 울림소 원진 / 원은 사람... 울린다!

배조교

(난 글 볼까) ...

원재

여기 자리표 틀어가지

배조교

원재를 보는 표정.
왕자크림과 딸은 표정 똑같음. 배조교는 표정.
이때 나타나는 배조교.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내가 나가자마자 버릴게. 정말이야!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응? 나 좀 봐봐.

원재

나? 아?
나, 뭐라도 아주 다양하던데? 외국인이, 그들화생애... 유부녀는 없었

표정

(무슨 조린가 하다가, 이내 생각난) 아... 알잖아 그건, 버릴려고 포아
곤 거야. 진짜야. 엄마가 뭐 안 해?

원재

휘파람 불고 원재는 울림별들.

옛날 여자들이 쓴 거 응용 수필하던데, 이것도 마저 수필하라구.

표정

(독란) ...누나

원재

(싸늘한) 아주 좋은 취미가졌더라냐?

표정

끼고 있던 카를럼을 빼 원재의 옆론에 던지는 표정.

여기 아웁게 왔어?

원재

부러움에 찬 시선을 원재히 두 사람에게로 돌린다.

이별 걱정!

등

이별 서민철!

민철

간섭 왔다면, 어떡하? (민철과 용봉 보고) 어이 신병.

객새산병

객새산병 들어온다.
각 잡고 앉아 있는 민철과 용.

S# 30. 민철과 용의 내무실 / 년

자막 : "이름"

지도책을 꺼내 연천군 군관공 군관면의 위치를 찾아보는 모람.
'최종전투부대 : 경기도 연천군 군관면 소재의 7603부대'

잠시 후, 결과 화면이 나타난다.

중이에 적은 번호를 보고 인력하는 모람, 조희를 실행하고 결과를 기다린다.

주민등록번호를 인력하라는 장이 된다.

범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모람. 메뉴에서 신병부대배치를 클릭하면,

S# 29. 모람의 집 / 년

아... 짜증나.

효정

할머니 남은 듯 원재를 보는 효정. 원재의 군장이 한없이 무거워만 보인다.
뒤 돌아서서 씩씩거리며 걷다가 갑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효정.

한이!

(효정 들으란 듯) 이 새끼를 들어가서 보자고. 여기 무슨 썰렁 온 줄

배조교

효정을 쏘아보고 지나가는 배조교.

원천히 효정의 어깨를 훑어주는 원재. 힘없이 돌아서서 자기 대령로 뛰어간다.

너 자리로 들어가라고 이 새끼야! 안 들려?

그리고 끝까지
단 그래서 요새 플랫폼을 보면, “지금 수업을 이어가는데, 나중에 전화해.”

수업문신

거지야
평행 나와. 전에다가 그 문란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근화 때문에 단 완전
... 면회 가리지, 후가 나오면 또 무슨 들어, 전화요금은 한 달에 20만

수업문신

고무신까페 점포, 열 명가량 모여앉아 얘기를 나누는 20대 초반의 문신들.
바르 포를프그에 나왔던 장소와 사람들이다. 진아와 보람의 모습도 보인다.

31. 생과일 요거트 전골집 / 너

네, 알겠습디다!

민원

포크 (민원에게) 짜세. 알았냐?
이게 빠져가지구. 너가 지금 부사수 키를 째봐이야? (찌그러지는 오바

짜세수범

(응문에게) 민원 권형수. 기타 하면 오바포크 아 됩니까?

오바포크

야, 권형수.

짜세수범

이봐서 민원! 아까 저분이 오바포크 하라고...

민원

그럼 아티스트의 감각이 좋았네. 너 짜세 째이다. 알았냐?

짜세수범

이봐서 민원!

민원

야 조용조용 찬찬해. 기타 친다는 말이 누냐?

짜세수범

S# 33. 진아의 밤 / 님

진아(Na)
 모처럼 시내에 나왔다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이더라. 그래서 오
 를 축하해서 고생하고 있을 뽀자기 좋다고 선물들 풀 샀지 않겠나.
 이물러야 쟤의 클로마스 폐한 올한선물세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인 거리. 선물들 고르고 있는 진아와 기성.
 늘룩포를 머리에 단 연명해사 녹잔의 전원과 얘기하며, 즐겁게 물건을 고르는 두 사람.

S# 32. 도선 거리 / 님

진아(Na)
 메리 크리스마스!

진아
 근데, 소포 보낼 때 다들 어떻게 보냈어요?

도림
 그냥 얘기 듣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진아
 보람씨는 원래 많이 없으신가 봐요.

도림
 네, 뭐 그럴 때도 있지.

진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보람에게) 언니도 그래요?

진아
 맞아 맞아. 나도 그랬는데.

진아
 사워할 때도 가지고 들어가죠?

진아
 정말요? 나는 요즘 전화기만 보고 사는 데.

너 버리는 거 아니지?

원재(V.O)

다시 건넌 후 하나가 볼 땀이 온다. 이번엔 우는 표정이 새겨진 건넌.

자기가 화내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

원재(V.O)

원재가 건넌 후 하나가 볼 땀이 온다. 이번엔 우는 표정이 새겨진 건넌. 건넌이 건넌 후 하나가 볼 땀이 온다. 이번엔 우는 표정이 새겨진 건넌.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원재(V.O)

원재가 보낸 공사우편을 손에 든 표정. 특별한 용투를 곁들여 보냈어. 건넌이 건넌 후 하나가 볼 땀이 온다. 이번엔 우는 표정이 새겨진 건넌.

S# 34. 물리치프린 / 밥

원재가 보낸 공사우편을 손에 든 표정. 특별한 용투를 곁들여 보냈어. 건넌이 건넌 후 하나가 볼 땀이 온다. 이번엔 우는 표정이 새겨진 건넌.

이건 뭐야? 건넌이 건넌 후 하나가 볼 땀이 온다. 이번엔 우는 표정이 새겨진 건넌.

진아(Na)

원재가 보낸 공사우편을 손에 든 표정. 특별한 용투를 곁들여 보냈어. 건넌이 건넌 후 하나가 볼 땀이 온다. 이번엔 우는 표정이 새겨진 건넌.

원재가 보낸 공사우편을 손에 든 표정. 특별한 용투를 곁들여 보냈어. 건넌이 건넌 후 하나가 볼 땀이 온다. 이번엔 우는 표정이 새겨진 건넌.

진아(Na)

원재가 보낸 공사우편을 손에 든 표정. 특별한 용투를 곁들여 보냈어. 건넌이 건넌 후 하나가 볼 땀이 온다. 이번엔 우는 표정이 새겨진 건넌.

(특관) 진짜?

진아

만 한가운데 얹어 있는 과거음지, 큰, 출병들, 출름 꽤 많이 마신 진아와 기성. 둘 다 상당히 취했다.

Cut To

(웃는)

기성

그렇다 어쩔래? 너까지 군대 갔으면, 단 아머 경축이한테 하루 동안 잔소리 들으면서 암바나 하고 있었을 거다. 독한 년.

진아

그래 단 맨날 편미신 뉘이지?

기성

원 메리 크리스마스. (기성에게) 그래도 너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진아

와인잔을 부딪치는 진아와 기성.

틀라, 암바 뜰나고 은했으니까 큰 오겠지. (와인잔을 들고) 자.

진아

경축이는 왜 안 와?

기성

케익에 초를 꽂고 박수를 치며 자축하는 두 사람.

S# 35. 기성의 집 / 밤

건뎡 세 개를 나란히 모아놓고 재밌다는 듯 보는 효정.

방금 웃었지? 그럼 화 푸는 거다. 응? 재발?

원재(V.O)

피식 웃음이 나오는 효정. 그때, 또 건뎡 하나가 특 뎡어진다. 활짝 웃는 표정의 건뎡.

결속

2명씩 짝을 지어 그림연색법 시험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한미영에서 손을 대고 중얼거리듯이 말하는 결속.

S# 39. 생물학과 시험 / 낚

빠문히 려리는 한관문.
전아가 고개를 숙 내림고 전 안을 살펴본다. 여전히 잠들어 있는 기성.
조선스럽게 천 안으로 틀어서던 전아, 순간 발에 무언가가 쿵된다.
내려다보니, 곧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전아의 브라와 가방.
공간 기성을 돌아보는 전아. 자는 척 뒤척이며 음릉 돌리는 기성.

S# 38. 기성의 전 / 아침

하다가 순간, 무엇을 느낀 전아. 가슴께를 만져보는 전아. 브라를 하지 않고 나왔다.
잠시 고민하던 전아, 그냥 계속 계단을 내려간다.
옆 걸음 가지 않아 다시 멈추는 전아. 손을 찡긋 잡고, 자신의 머리를 뽀뽀 때리는 전아.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전아

한관문을 조선스럽게 닫고 나오는 전아.

S# 37. 기성의 전 앞 / 아침

북이 타 피로공 원공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전아. 머리가 깨진 것 같다.
몸은 으스스 떨며 땀을 흘려내리는 전아, 순간 깜짝 놀란다.
아무것도 쿵치지 않은 양몸.
북라 몸을 가리며 돌아보니 옆에는 기성이 자고 있다. 역시 양몸으로.
북라서 입을 틀어막는 전아. 밑바닥에 털부러져 있는 옷가지들을 본다.
기성이 깨지 않게 삼그머니 침대에서 내려오는 전아. 주섬주섬 옷을 챙겨든다.

를...

전아

입을 썩 벌리고 잠들어 있던 전아, 피로공 듯 눈을 뜬다.

너를 떠나고 싶어

(3)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3)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옆면 목소리로 수업을 하는 선생.

S# 40. 교실 / 날

문밖을 향해 아주.

경숙

난데없는 뽕뽕소리에 취할 뻔 안의 시선을 머뭇머뭇 지어에게로 옮긴다.
전화기를 붙잡고 있다가 갑자기 포그려 앉아 역지로 소리를 참으며 뽕기 시자하는 잔아.

(나조막히) 나도...

잔아

문밖은 전화.

수업? 그래. 나도 들어가 봐야 하는데, 안들 잠깐이라도 나 목소리를
오니까 좋다. 또 전화할게 사랑해~

은석(E)

은석아, 나 지금 수업 중...

잔아

웃다가 조금씩 눈물이 나오는 잔아.

넌 정말 어땠게 된 애가... 안 바빠냐? 내 생각 풀 그만해. 내 꿈에 왜
너만 나오냐고, 편 여자들도 가끔 나오게 풀 섞어.

은석(E)

...정만?

잔아

랑잖아 나, 란 있어. 교황들도 다 좋아. 힘든 거 없어. 췌야 보고 싶은
거 란고는.

은석(E)

(쓰리게 웃는) 란 지내? 아픈 덴 없어?

잔아

S# 42. 미디어음 / 밥

미디어음 비짜구르 뭐하러 구장 가는데?

미디어음

호신 (오빠란 소리에 기분이 좋음) 그래... 밥 먹고 우리 뭐하러? 구장 관례?

호신

미디어음 (웃소리) 괜찮다. 내 딱 한잔만 하고, 나머지는 오빠야가 다 마시라.

미디어음

호신 (주위를 살펴하며 작은 소리) 나 좀 마시도 되나.

호신

미디어음이 서담 안. 미디어음과 호신 함께 밥을 먹고 있다.

S# 41. 원거리 음성전 / 저녁

미디어음(소리) 아들마 여기 소주 한 병요!

미디어음(소리)

원거리 음성전 (아들마, 한 병 보냈네.)

원거리 음성전 (미디어음, 다시 공자를 보내는 미디어음.)

원거리 음성전 (아들마, 저한테 보내신 거 맞아요?)

원거리 음성전 (미디어음이 오는 미디어음의 원거리 음성전.)

원거리 음성전 (미디어음이 와서...)

원거리 음성전 (아들마, 이 수나라 장군 우중문이란게 시를 하나 써서 보내지, 에이고 쪼다
는 거야. 멋도 포르고 평양성 30리 밖에까지 왔을 때, 그때, 응지문턱
그러니까 이 응진 관은 컸을 이 응진 구나 하면서 쫓아올래 따라 들어오

원거리 음성전

원거리 음성전 (아들마, 그럼 내림 내림하러지 모.)

원거리 음성전 (미디어음, 선생 물래 공자를 보내고 있다.)

원거리 음성전 (아들마, 또 한 번 피시지, 항복하는 척 하면서...)

원거리 음성전 (아들마, 이 수나라 장군 우중문이란게 시를 하나 써서 보내지, 에이고 쪼다
는 거야. 멋도 포르고 평양성 30리 밖에까지 왔을 때, 그때, 응지문턱
그러니까 이 응진 관은 컸을 이 응진 구나 하면서 쫓아올래 따라 들어오

원거리 음성전

동전을 꺼내 특영구에 넣고 다시 번호를 누르는 등.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등

또 안 반나? 들어가자.

꼭새상범

애처럼 수화기를 내려놓는 등. 동전이 떨어진다.
반복되는 쉼터음 소리,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음중전화 수화기를 들고 초조하게 연결을 기다리는 등.

S# 43. PX / 밤

이어서 옷 벗는 소리, 서로 부대끼면서 벽에 부딪치는 소리, '쪽쪽' 키스하는 소리가 들린다.
영화는 다중 시각해지지만 화면 밖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의자등 바닥에 떨어진 비영의 핸드폰, 혼자서 진동으로 울리고 있다.

아, 알았다 알았다. 잠깐만. 응 들어가나.
비영(소리)

단축 들어가지는 소리 들리고

(거침없이 호출) 아이다 왔다.
호신(소리)

물, 물... 오빠야 이런 사람 아니잖아.
비영(소리)

영화가 상영되는 대형스크린.
비영과 호신은 극장이 아닌 좁은 비디오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다.
음표수를 흘리며 아무런 지 않게 비디오를 보는 비영.
반면 호신은, 나란히 앉은 게 어색하면서도 오히려 비영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다.
호신, 머뭇거리며 비영의 손을 흘며서 잡아본다.
비영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안심하는 호신.
스크린 속에서는 사뭇 심각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카메라, 화면을 계속 비추고 있는데 화
면 밖에서 갑자기 이산화 소리가 들린다. 호신이 비영을 떨친 것이다.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 가득찬 거리.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효정.
약속장소에 먼저 나와 있는 영재를 발견한다.
효정, 달려가는

S# 46. 도시 문화가 / 밤

외면하고 나가는 현준.

물쭈물해서 한 번 봐줘야, 그 나이 때 호기심도 많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어때? 나 괜찮아? (포럼 포즈를 취하며) 우~

효정

그분이랑 만난 거 아니었나?

현준

원재 백인후가~

효정

어디 좋은 데 가지나?

현준

거를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옷매무새를 만지는 효정.

S# 45. 물리치포션 / 낮

기성이 다가오는 반대쪽으로 가버리는 진아.
범벅다 량고 먼저 가버리는 진아를 멍뚱하게 보는 경숙.
친구들과 자리에 앉은 기성, 도망치듯 가는 진아의 뒷모습을 씩씩하게 본다.

먼저 일어날게.

진아

경숙과 함께 밥을 먹는 진아.
식판을 들고 다가오는 기성을 발견하고 표정이 굳어지는 진아.
기성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나다.

S# 44. 학교식당 / 낮

이런 때에 관공은 거울 안으로 (재채기)에 휘!

표정

기름이 좋아진 표정, 밤하늘을 응시하며 한숨을 쉬고 있다. 관공은 거울 안으로 휘!

...아

표정

물어사서 뒤로 걷기 시작하는 원재. 관공은 떠러서 뒤를 돌아보는 표정. 관공은 다 놓아들이고 공을 응시하며 원재가

여기 편할까...

표정

(그런데) 관이 영이 나니까 좋아.

원재

플가 나니까 좋아?

표정

나란히 걷고 있는 표정과 원재

S# 47. 선봉도 운영 / 밑

(기분 좋게 웃는) 오를 뭐 한까?

표정

응, 백인이 원이 관이야.

원재

원이야?

(원재가 안쓰러움) 예 이렇게 행하해 진거야? 응? 내가 그렇게 보고

표정

탄력가서 막사 마구 서고 보니 관히 아색해지는 두 사람.

iii-원재

표정

모람

그렇게? 안았어. 매을 하고 틀어와.

하나

그러면 언니가 이겨 하세요. 내가 나가서 물일게요.

모람

잠깐만 등 물 돌리고 할게.

하나

이거 오를 안에 다 해야 돼요.

모람

매직으로 락짜를 덧쓰던 모람, 그런 하나를 흘끗 쳐다본다.

의자에 가서 앉는 하나.

안 좋은 표정으로 연금식을 나가는 우선.

차가 막혔어. 이겨 틀이면 되는 거야?

하나

야 너는 아까 전화한 게 뭘 신메...

우선

그때 연금식으로 틀어서는 하나.

포스터 움직를 들고 나가는 우선.

근데, 애는 왜 안 와?

우선

(진땀을 흘리는)

모람

언제해서 언제 틀이나 이걸. 서둘러.

우선

그 앞에서 정산없이 포스터 위에 매직으로 덧쓰고 있는 모람.

연금식 한편에 묶여 있는 포스터들.

S# 48. 맨드연금식 / 밭

친구2

(눈웃음치며) 그러기?

효정

메이트하기?

(효정에게) 누나, 2년 너무 길지 않아요? 저 면제에 원재 대신 나랑

친구2

역시, 원재 년 울 짝은거야.

친구1

친구들, 환호한다.

고 다 시켜.

(원재 친구들에게) 내가 한 테니까 너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걱정 말

(지나가는 운영원에게) 여기 맥주 더 주세요.

효정

원재 친구를 하나하나에게 안주를 챙겨주는 효정, 원재 친구들과 아주 가까워 보인다.

Cut To

(새로운생큰 웃으며) 내가 불렀어. 환했지?

효정

야? 재네를 봐야?

원재

누나, 야기요.

친구

친구들 돌아서는 효정을 보고 인사하는 원재의 친구를

S# 49. lunch / 밥

연락 못 받았어야? 민철이 휴가 나왔잖아.

하나

(이야해서 물어보는) ...네? 이거 다 물어야...

안 돼. 나 그만 마셔야 돼.

하나

(하나에게) 마시고 한잔 받아라.

민철

이름, 인도를 붙여서 부르는데, 인명이 없어. 인명이 없어.

우선

애 포를 수도 있죠.

민철

선하다 당보람.

우선

(민철에게) 인명이 이쁘다 좋은 거예요?

민철

그렇지 뭐.

민철

아직 멀었네.

우선

4월.

민철

인명 진복은 언제냐?

희범

(취기가 오를) 나 없이도 관를 알아간다니까 기쁜 좋은데 뭐.

민철

휴가 나온 민철과 밴드 팀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건너편 테이블,

원재, 눈치 없이 친구들과 농담하는 효정에게 기분이 상한다.

(원재에게) 역시 연필이 있으시나 쟈스가 당도는데?

차가 다니는 길가 전봇대 옆에 쪼그려 툇하고 있는 민철.
민철의 등을 쳐주고 있는 보람.

S# 50. 출진 판거리 / 밤

한나 나가고, 출진을 틀어키는 민철.
몸꼬라미 민철을 버려버리는 보람, 민철이 민철의 민 자에 출를 띠러준다.

.....

민철

(민철에게) 안녕, 또 보자, 민철아.
(털원들에게) 민철이 신신하지 않게 재밌게 봐줘.
(원어나려는 민철을 만리며) 됐어. 나오지 마. 그냥 관개.

한나

(원어서는) 바래다줄게.

민철

(민철에게) 미안. 다음에 휴가 나오면 그때 한잔 하자.
안 가면 나 봐려.

한나

오를 못 간다 그래. 민철이가 맨날 나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 불러
고 왔는데 벌써 가면 어쩌려나?

우선

그런 거 아니고, 레슨 가야 돼.

한나

(민철을 보코) 나가 계속 근무에기만 하나까 재밌어서 간대잖아.
어디 가는 데? 중요한 일이야?

우선

(시계를 보코) 미안한데 나 먼저 일러줘. (원어나는)

한나

그런 게 어딴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선

똥, 똥이 아니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민철의 옆론이 똥의 똥에 와 든는다.
 기댄다.
 똥, 민철의 머리를 편하게 뒤로 기대어 눕으려는데, 민철은 뒤척이며 똥의 어깨에 머리를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불편한 자세로 잠이 든 민철.
 상차단 민철의 손가락을 지혈하기 위해 꼭 잡고 있는 똥의 손.
 똥에게 나란히 탄 똥과 민철.

51. 택시 안(이동) / 밤

똥, 민철을 전봇대에 기대어 놓고 승전 건물로 들어간다.
 똥으로 편 쓰러지는 민철.

똥
 잠깐만 있어요. 가만 가지고 응게요.

민철
 (혀가 꼬여서) 나 죽을 것 같다. 집에 가야 되는데...
 (혀가 꼬여서) 나 죽을 것 같다.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집에...

똥
 손 봐주세요. 피 나잖아요.

민철
 (똥을 본다) 똥이구나. 고맙다.

똥
 일어나려는 민철을 힘겹게 부축하는 똥.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잠이 주저앉는다.
 이때, 립카로 공 모서리에 민철의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난다.

민철
 (손을 내저으며) 우행-

똥
 손 많이 쓰려요? 손 깎는 약 좀 사들까요?

민철
 우행-

똥
 편찮아요 오빠?

나도 집에서 나오고 싶었는데, 아, 씨...
호신

그거 말고... (백빠진) 됐다 무라.
유미

그래, 밤에 무섭겠다. 환 장그고 자라,
호신

무섭다, (작게) 밤이...
유미

나?
호호... (저녁이 먹는) 그런데 나 여 혼자 사나? 혼자 있으니까 안무척
호신

다. 아무거나 환 볼고.
(저녁이 먹는 호신 보고) 오빠야는 장가가면 마누라한테 사랑받겠
(별미 쳐다보다) 내 원래 라볶기 환하는데...
유미

왜안다. (별미 물어 죽어간 면발은 후두둑 먹는) 맛만 좋네.
호신

우짜노, 다 들었는데,
유미

“유미” : “호신”
미양, 가스렌지 불을 끄고 라볶기 냄비를 틀어 섞어 섞어 내려놓는다.

S# 52. 옥의 집 / 닭

물끄러미 민첩을 내려다보는 바람.
민첩, 중상을 입고 민첩의 무릎 위에 물췌 편이진다.
듣고머니 몸을 빼는 바람.

(작꼬대) 한나야...
민첩

민첩에 몸을 부비고 틀어주는 민첩.

아...아, 표정씨, 거기 아니야, 아니야.

환자

응는 환자와 표정, 다정해 보인다. 표정, 뱀트를 약간 위에 착용하자

(허리를 살짝 마사지하며) 그림요, 남자는 허리가 좋아야죠.

표정

(느끼하게) 허리 많이 좋아졌어요, 표정씨 덕에. 하하하.

환자

30대 초반의 참새긴 남자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표정. 능위 있는 환자의 허리에 견인치표를 시작하려는 표정.

S# 53. 물리치료실 / 낮

(머블기를 먹는다) 일단 된다. 무라.

미양

아니 좋다. ...근데 진짜 그래드 되나.

호신

하하 원나?

미양

(물관) 여, 여사? ...그래도 되나?

호신

오빠야, 그럼 여사 나만 관이 참래? 방세는 뭘 수 있게?

미양

듣고 있던 미양, 갑자기 녹음 콘리하며 밧살름 탁, 친다. 면다가 특리서 쳐다보는 호신.

아부지가 돈을 안 준다. 형 졸업할 때까지는 안 된다.

호신

나오마 되지.

미양

(사냥하러) 아 예, 갑사합니다.

표정

(커피를 뿔다가) 제가 뿔음 게 뿔음데, 먼저 가져가세요. 링크?

재현

예 자주 나와서 찾아? 다시 가?

원재

(웃으며) 굳인아? 이렇게 찾아가자? 나와도 돼?

표정

재현이 뿔음데 뿔음데 커피를 여러 잔 뿔고 있다.
자판기 앞에 서는 표정과 원재.

S# 54. 북도 휴게실 / 낮

아~아~ 표정씨~하리 하리. 하리 뿔어져.

환자

그때, 오작동 되는 기계 때문에 환자의 하리의 무리가 간다.

아, 원재야.

표정

환자에 굳은 원재가 뿔한 표정으로 서서 표정을 뿔다.
표정, 뿔어보면 환자가 굳으로 입구를 가리킨다.

권선생..

환자

표정, 기계 버를 뿔 뿔는데

표정씨, 오름은 강도 7로 해줘요.

환자

잠, 뿔씨 장난도... 자 뿔씨 힘 빼시구요.

표정

뿔 뿔으로 내려봐. (뿔으로 내리는 표정) 아아 참살해요. 오케이, 거기.

됐어.

원제

(꼭쳐보는) 소리 지르지 마. 안왔어 나중에 얘기해.

표정

지금 새색내는 거야? 그럼 휴가도 나오지 말까?

원제

근지 안가나 해?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 너 휴가 나올 때마다 카드값이 얼마나 나오

표정

그래 내가 먹여 살리면 되잖아. 먹여 살리게.

원제

그만 두면 내가 먹여 살리겠어?

표정

아이없는 표정, 웃음이 나온다.

커피를 마저 뵙다가 표정과 원재를 돌아보는 재현.

그러니까 인릉 꼭 그렇게 해야 되나고? 기분이 나빠서 그러려면 그만 뭐!

원제

왜 그래? 인이잖아.

표정

만.

아까 뭐야? 표정씨, 표정씨? 그 환자란 친해? 그러다 아주 눈 핏겠다

원제

옆으로 자리를 옮기는 표정과 원제.

눈웃음치는 표정을 못마땅하게 보는 원제.

(재현에게 커피를 건네받고) 여기 동전.

표정

단 안 마셔.

원제

연습실을 나가는 한나.
꿈이 단하면, 우성은 너무젓가락을 내뺐게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어쩔 수 없잖아, 근대 있는데. 대신 안부 중 전해줘.
(권을 챙겨들고) 영국 가기가 전에 좋은 관 한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
다. 어찌됐든 권을 지내.

한나

민철이 빠는 안 보고 가요?

모람

(러면 먹는다) 됐으니까 신경 꺼.

우성

그럼 내가 가져간다. (챙겨들고) 한국에 돌아와도 밴드는 다시 안
가야. 솔직히 못 지켜줘. 비전도 안 보이고 (우성과 현수에게) 니들도
이려고 있지 않지만 말고, 다른 권을 찾아봐.

한나

아뇨. 민철이 오빠꺼 권인데...

모람

클레, 헌단은 1년인데, 봐서 더 있을 수도 있어. 씨디 이거 누구 거지?
표람이 니 거냐?

한나

가면 언제 와요?

모람

캐비닛과 서랍에서 가져왔던 권을 정리해서 상자에 담은 한나.
모람은 그런 한나를 물끄러미 보고 있고, 우성과 희범은 무심하게 커피만 음 먹고 있다.

S# 55. 밴드연습실 / 낮

어디 가? 야?

희범

하고 뭐가 버리는 원재.

공동자 편집 스탠드에 나란히 앉아 있는 진아와 기성.

생각해봤는데... 너랑 여색하게 지내는 거 나 싫어.

진아(소리)

물 학기가 시작된 꼬정. 여기저기에 곳곳한 커피들의 다정한 모습이 눈에 띈다.

S# 57. 캠퍼스 일각 / 낮

게임을 하는 재현을 보며 생각해하는 보람.

.....

보람

예외 없이, 세상에서 가장 포시기 쉬운 게 군대 간 남자야. 두 번 제로 쉬공 권 애인 군대 보낸 여자구.

재현

오빠도 그랬어?

보람

그런 애들이 더 썩박하지. 자기가 아는 여자들은 무조건 다 시름레이 션름 해봐, 가상의 애인으로. 그러면 평소엔 관심 없었던 여자한테도 막 마음이 가고 그러거든.

재현

애인 없는 사람들을 잊잖아.

보람

(게임을 하며) 여자 생각뿐이지 뭐.

재현

오빠, 남자들은 군대 있으면 주로 무슨 생각해?

보람

를스를 TV에 연결해서 1인칭 슈팅(군인이 나오는) 게임을 하고 있는 재현.

S# 56. 보람의 집 거실 / 밤

나, 칸래.

진아

칸커피를 내려놓고 턱턱 씹어서는 진아.

그때부터 다 엉망이 됐어.
올아한 건 내가 먼저인데, 은석이 때문에 너한테 말한 기회도 빼기고,
그때 왜 내가 은석을 데리고 나왔을까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기섭

그만해 얘기하지 마.

진아

우리 셋이서 처음으로 영화 봤던 날...

기섭

.....

진아

옛날에도 단 안 편했거든.

기섭

...왜?

진아

진아야, 그런 불 함들 것 같단다.

기섭

응? 기섭야. 없었던 걸로 하고 옛날처럼 편하게 지내자 우리.

진아

.....

기섭

홍릉 거 칸야.

...지난번 그 림은 그냥 없었던 림로 하고 잊어버리면 안 될까? 홍릉
에 그런 거고 다른 환경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진아

칸커피를 마시지 않고 만지작거리네 진아.

그때 시멘트 담뭍 위로 고개를 숙 내미는 뽀얀뽀얀 피마머리 시름 아픔이.

(영영 우는) 나 기성이라 왔어. 나도 몰라, 왜 그랬는지. 미안해 응석
아... 미안해 미안해... (영영)

진아

공간 자기도 모르게 뽀얀 뽀얀 피마머리 시름 아픔이.

나 기성이라 왔어.

C# 진아

만나는 사람 생겼어. 미안해.

C# 진아

그만 너 지켜줬어. 나 원래 이런 애 거 룬잖아?

C# 진아

엄마가 연수 가래. 너 못 기다리니까 그렇게 안고...

C# 진아

나 한 편 있어. 너랑 더 이상 못 만나.

C# 진아

부대 연구가 보이는 길가. 시멘트로 대충 버려진 담뭍 앞에 서 있는 진아.

S# 60. 부대 판 동네 룬뭍 / 낚

책상 옆에 놓여 있는 사진. 진아, 은석, 기성 셋이서 함께 웃고 있다.
사진을 보며 생각하는 진아.

S# 59. 진아의 밤 / 낚

전신거울 안의 보람. 예쁜 속옷을 입고 옆모습 뒷모습을 비춰본다.

S# 58. 보람의 집 / 낚

공동주택을 가로질러 휘적휘적 뛰어가는 진아.

(경례) 응선! 이별 황공각 이별소애 응무 있어 왔습니다.

이별황공각

이때, 이별소애응포를어서는이음.

나처럼 조각 관은 두상을 두고 뛰라카도 지금.

능

관란만네. 나는 두상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도 자세가 안 나와.

민철

너무 빨잖아.

야 이쪽 너무. 빨리 치지 말고 구레나룻 풀 삼리봐봐. 씨마 앞머리도

능

능의머리를깎고있는민철.

S# 62. 사별이림소 / 님

위림소애에서 서성거리던 기성, 특라서 진아를 쳐다본다.

별관음 가다 순간 자리에 멈추는 진아.

결심한 듯 이를 앙다물고 별관음을 떼다.

관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는 진아.

S# 61. 위림소애 / 님

특라, 도망치듯 나오는 진아.

은 하여튼 약해 빠져가주구서는, 쫓쫓...

죽을 때까지 숨겨. 눈앞에서 권려도 숨겨. (힘을 풀면 차는) 요즘 것을

아름마

(특라) ...네?

진아

미쳤어, 학생?

아름마

면회실 앞에 흐드러지게 핀 꽃봉을 보며 민철을 기다리는 보람,
물론 꽃잎처럼 화려한 옷차림과 열개 화창한 얼굴,
간간히 돌아오는 바람에 귀뚱머리가 처렁거리다.
림리서 뛰어오는 뽕사리가 보인다. 민철이다.
긴장하는 보람.

S# 63. 면회실 앞 / 녀

아 새끼 진짜. 이기 뭐고.

농

뽕새은 표정으로 자르다 만 머리를 거름에 비춰보는 농.

(꽃피를 보다가) 울성! 이별 화공을 그려 들어가겠습니다. (나간다)

이별화공가

를 그려 양아서 왜. (나간다)

민철

야! 씨마, 이겨는 우짜고?

농

잔시 공과 눈길을 마주치는 민철. 가위를 내려놓고 가운을 벗는다.

너 애인 없잖아.

농

여자친구라고 말입니다.

이별화공가

면회? 누가?

민철

서민철 인별님. 면회 왔는데 말입니다.

이별화공가

(문다)

민철

말씀이요. 또는

민원

그냥 한번 해봐요. 뭘 할 말씀 없으세요.

민원

예쁘게 모양을 내 건담과 샌드위치, 한곡에 봐도 정성이 가득한 도시락이다.

(뚜껑을 열어보고) 와우, 이게 나가 만든 거야?

민원

를지 모르시겠어요...

(가져온 편지를 꺼내며) 건담이랑 샌드위치 둘 싸웠는데, 뭘 가져와야

민원

피엑스를 우습게 보는구나 나가. 여기도 먹을 것 많아.

민원

그런 것도 있어요?

민원

배고프지? 뭐다 먹어볼래?

민원

다시 서면해져서 할 말이 없는 두 사람.

그래?

민원

택시 아저씨가 마포 안덕마을.

민원

아저씨 꼬맴다. 찾아오기 힘들진 않았어?

민원

마중 양은 보람과 민원. 서면서면하기만 하고.

S# 64. 위변조 면회실 / 년

(관음)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밖에 있을 땐 1, 2년 금방이었는데

민철

네.

민철

걱정 마. 한나 빠진다고 밴드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보컬은 새로 뽑으면 돼. 내가 나갈 때 까지만 어떻게든 해 줘. 할 수 있지?

민철

단 뭐...

민철

너는 어때?

민철

오빠들도 팀 탈한 거 봐요. 요즘은 연습실에도 안 나오고.

민철

찾구나... 우성이랑 회범이는 어때?

민철

지난 금요일에 볼 수 있었어요.

민철

한나는 찾아?

민철

볼기공이 만연한 시련중경이 펼쳐진 길을 걷는 민철과 보람. 보람은 이제 보너스 차미를 입고 있다.

S# 65. 부대 인근 국도 / 날

웃는 보람.

짜웠다.

민철

건담을 하나 찾아먹는 민철. 민철의 반응은 참피는 보람.

전를 부딪치는 세 사람.
기분 좋게 한번에 털어내는 은석, 흥얼거리며 또 고기를 썬다.

(고기가 열에 한가득) 아 새끼야. 칸이 마셔. (따라주는) 아~ 너무
다. 정말 안틀리버를하고 판타스틱한 이 이메일이 그래이스, 너를
를 거다. 응? 자 나오 오를판과 원상장. 한잔 해.

은석

정신없이 고기를 먹고 있는 은석.
어색하게 앉아 은석의 눈치만 보고 있는 진아와 기성.
기성은 연신 말없이 소주만 들이킨다.
혼자 잔을 따르는 기성을 보고, 소주병을 빼어드는 은석.

S# 66. 부대 앞 고깃집 / 저녁

민철의 림에 계속해서 웃음이 나는 보람.
보람의 머리를 홀트리며 칸이 웃는 민철. 계속 그냥 웃음이 나는 보람.
오후 햇살에 림어진 민철과 보람의 그림자.
민철의 그림자 손에 다가가서 잡는 보람의 그림자 손.

진짜야

민철

(웃는다)

보람

그게 아니라, 림이 둘라워서 림이야

민철

림은 뭐

보람

림이 왜 림인 림이야?

민철

오빠. (계를자를 가리키며) 두 개면 림은 림이야?

보람

예... 틀어버리겠다 진짜.

또다시 계속되는 딸방의 신음소리. 점점 격렬해진다.
가만히 듣고 있기 참으로 미안한 상황. 민철,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호젓한포) 파리가... 있네.

민철

에이 씨마, 뭐야?

(남자소리)

그러자 딸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머쓱해지는데 누 사람, 민철, 준비덕으로 벽을 탁 친다.
깜깜하던 딸방의 이내 신음소리가 바뀐다.
아색한 몸위기가 감도는데, 바로 딸방에서 남자가 잔단치며 웃는 소리가 들린다.
웬만만에 나란히 앉은 보람과 민철.

Cut To

민철, 보람을 본다.
단연한 권 물어모냐는 듯 대답도 않고 서 있는 여주인.

똥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민철

오래된 벽지는 누렇게 바래서 열복이 찼다.
서취시럽은 물론 TV도 없는 썩렁한 썩방.
드르륵 열리는 미닫이 방문. 방 안을 들여다보는 민철.

S# 67. 여인숙 / 밥

하는 수 없이 받아먹는 잔아. 입을 가려 오물거리며 기성의 문치를 보는 잔아.

어워, 서방님이 잔수 짜주시는데 어틸, 자, 아~

은석

됐어, 너 먹어.

잔아

(고기 찐 것을 잔아에게) 자 우리 잔아, 아~

은석

원바닥에서 꼬를 문며 잔들어 있는 은석과 뒤돌아 누워있는 기성.
침대 위 잔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잔들어 수가 없다.
혹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쓰는 잔아.

Cut To

(화답한, 죽이 려게 노란 권뽕이) ...

은석

(뿔뿔 일어나며, 버럭) 하지 말랬잖아!

잔아

계속 몸을 뒤돌며 은석을 밀쳐내던 잔아, 문득 원바닥에 뒤돌아 누워 있는 기성을 본다.
있는 힘껏 은석의 손을 잡지만 역부족인 잔아.
계속해서 잔아의 옷 속으로 파고드는 은석의 손.

(속삭이는) 미쳤어! 잘못 가.

잔아

(속삭이는) 괜찮아 가만 있어.

은석

깜짝 놀라 몸을 뒤트는 잔아.
잠든 줄 알았던 은석, 눈을 반짝 뜨며 잔아의 옷 속으로 은근슬쩍 손을 넣는다.
침대에서 자고 있는 은석과 잔아. 바로 옆 원바닥에서 자고 있는 기성.
깜짝추와 오징어, 연골 껌들이 뿔뿔이다니는 밤 안.

S# 68. 여관방 / 밤

아 그래.

민철

피곤해서...

(를잡으며) 아나예요 오빠. 많이 미쳤어요. 나 좀 누워도 되죠?

민철

좀 한 잔 더 할래? 내가 사들게. (일어나려는데)

민철

민철

물결...

민철

이

민철

...그거 하고 하면 안 되잖아?

민철

응

민철

(다급하게) ...

민철

편티를 벗기려는 민철의 손을 잡는 보람.
 보람, 브래지어를 벗고 손으로 가슴을 가린다.
 민철이 브래지어 후크를 풀지 못하자, 자기 손으로 후크를 풀어주는 보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옷을 하나씩 허물처럼 벗어 던지는 두 사람.
 점점 또거워지면서 격정적으로 서로를 끌어안는 두 사람.
 민철, 그 근황에 이클레 모래의 얼굴에 입을 맞춘다.
 보람, 참마사리를 먹고 민철을 본다. 축축히 젖은 목덜.
 내려온 머리칼락을 손끝으로 훑어던기고 보람의 얼굴을 보는 민철.
 민철, 표정에 있는 보람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본다.
 얼굴과 얼굴이 닿을 듯 가까워진 두 사람.
 보람, 잔잔히 뒤척이는 보람의 얼굴을 향해 물이 흐른다.
 그때 곡물 변색 보람, 문득 입을 닫는다.
 자고 있는 보람의 얼굴 위로 보이는, 뒤척거리는 민철의 모습.
 도로 자리에 눕는 민철. 가늘게 새어 나오는 한숨소리.
 그러나, 보람의 다리 앞에서 멈추는 손. 이불을 끌어다 보람을 덮어준다.
 순간, 자기도 모르게 보람의 다리로 손을 뺀 민철.
 안 그래도 짧은 다리를 응크리니 더욱 짧아진 차마.
 이불 밖으로 나온 보람의 다리.
 짧은 한숨을 뱉으며, 잠은 보람을 내려다본다.
 탄탄해서 미치지 않는지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는 민철.
 보람의 등 위에서 민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인다.
 볼까진 안, 민철을 등지고 모로 누운 보람.

버스에 올라타는 사람. 버스 좌석의 후진하면서 바깥을 둘러본다.

그때

민철

관개요 오빠!

민철

버스 안에 서 있는 사람, 의기소침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그 옆에 어색하게 서 있는 민철.

S# 70. 소름 버스타미팅 응감자 / 님

(웅이 깨져 여색해진) 물... 뭘... 뭘...?

민철

(환황을 찾다가) 아, 어디 왔지? 분명히 났었는데...

민철

민철에게 가뭄을 더겨주는 민철. 민철은 벼슬을 가리고 돌아앉아 가뭄을 뒤적인다.

가뭄 뭘...

민철

(지퍼를 열어보고) 없는데...

민철

안쪽에 보면 지퍼가 있는데...

민철

구석에 있는 사람의 가뭄을 보는 민철. 뽕문처럼 기어가서 가뭄을 열어 뒤적인다. 어물기도 하고 잔다한 소지물들이 있어서, 또 대체 뭘 수가 없는 민철.

그중에, 내 가뭄 안에...

민철

아? (단감한) ...지퍼 없는데.

이런데, 뭐하러 사귀어?!

효정모

나중에 얘기해 줄게.

효정

(미시적계 보는) 뭐하러 사귀어?!

효정모

있어.

효정

누구 있어?

효정모

내가 알아서 할게.

효정

너 사귀어야. 시집 안 관 거야?

효정모

안마에 열중하며 따윈 피우는 효정.

내가 매을 알아봤는데, 너 정도면 나쁘지 않아.

효정모

효정, 한순엔 수밖에 한순엔 진동 안마기가 들려 있다.

수박을 먹고 있는 효정 모녀.

S# 72. 효정의 집 / 밥

자리에 앉는 보람, 목을 좌곤 감으며 짙은 술을 내린다.
보람의 시점으로 보이는, 우두커니 선 민혁의 모습이 점점 작아진다.
립어지는 민혁의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무는 보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S# 71. 버스 안 / 냇

의미, 물리적표사... 외모...)(하면서 표정름 보느)는 보물.

표정모

표정모를 이해하고 무안한 표정.

그런 건 만으로 적는 거야. 생일 안 지났으니까 이식물... 세.

표정

(페를름고 작성해 나가는) 화력, 대를... 나이, 산성 세...

격정 마. 나 클은 민원에서 뵈 테니까.

표정모

여기 가임비 나 안 내. 임마가 내.

나를 못 봐야 면어서 안된 이 왔어, 하여튼.

표정

(가임서부를 보는) 뭐가 이렇게 적을름 게 원어?

표정모

원를 나가느 메너저.

다 적으시면 만족해주세요.

(가임서부를 내림) 여기에 본인 포로필름 정확히 작성해 주시구요,

메너저

미팅물, 커를메너저에게 수답를 받는 표정과 표정모.

S# 73. 결혼전보회사 / 닳

지랄하네. 잔소리 많고 내린 나랑 같이 가. 한았어?!

표정모

...스름...셋.

표정

군인? 뭘 참인데?

표정모

...군인이야.

표정

수피 쪽으로 뛰어가는 호신.
호신의 뒷모습을 보는 비양, 혀를 문문 차며 고개를 좌레천레 흔들는다.

함았다.

호신

라면 빼진다 으름은, 두 번 문시키지 말고 사와라 쫓.

비양

발 먹자, 내 큰방 하계.

호신

오빠.

(기가 막힌) 됐다 됐다 (내려오며) 짐에 라면 없제, 가서 쫓 사온나,

비양

포가 또, 어제 해준 닭도리탕이 맛이 없었나.

호신

쫓 쫓마르 해라... 다들 게 부실하모.

내 으름 선택한데 뛰어가 다리 아프다 했잖아. 아~ 맘택이, 어디 산쫓
름 뜰며고 왔나, 다리 뻐라지는 쫓 안았네. (신경권 버력) 이런 거나

비양

(으음) 니가 쫓 권으문 안되겠다.

호신

빨리 쫓 가라, 배고파 다지겠다.

비양

비양을 쫓고 뛰어가는 호신, 목에 비양 가담까지 쫓었다.

S# 74. 농의 집 동네 / 밥

(참견하는) 내가 왜 보물이야? 나이 서른에 이정도면 최장이지 최장이
나 어적 어디 가서 안 풀려. (가임서부를 뺏는) 쫓, 내가 한 거니까.
(적이나가는) 안만 쫓을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표원

저 봐라 저, 우째 나이를 한 다 쳐무도 변하는 기 없노.

농

밖으로 쑥 들어가는 농.
순간 서공뎀이 나는 비양, 짹싸게 농을 밟치고 먼저 밟으로 들어간다.
피복 재킷을 벗어 밟 안에 툄트러져 있는 호신의 속옷 위에 던져 던지는 비양.

내 절에 내가 머한디포 열락하고 오노?

농

(단화해서 패의) 아나, 열락함 하고 나와야 될 까 아이기. 이...이레 칸
자가 오문 우짜노!

비양

(곤화 벗는) 우째 인이라이? 그기 지근 녀 름 면에 보는 사람한테 하
는 소리기가?

농

우...우째 인이라이?

비양

뵈 커진 왔다. 름 그리 례래.

농

(림이 나간) 오빠야...

비양

소리에 깐짜 례라 례어보는 비양. 농이 접으로 틀어서고 있다.

어쩔 무라왔다 하?

농(소리)

(곡은 뵈레비절에) 무라왔다 왔다.

비양

그때 현관공림리는 소리가 난다.
TV오락포를 보면서 하의역가리는 비양.

S# 75. 농의 집 / 름

남자랑 사는 거 알겠단다.
(조용히 하라는 표시) 뭐! 조용히 해라. 지금 우리 학매 올라왔다. 내

미양

하 그라는데?

호신

호신은 공관관고 호신의 인를 푸는 미양.

76. 능의 관관관 / 뱀

뱀들만 피복재킷을 뒤로, 옆으로 숨기며 뱀을 나가는 미양.
그때 미침 관관으로 호신이 라면를 사를 고를어선다.
뱀다 호신의 인를 먹으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호신.

(후~) 알았다. 끝만 갔다오게.

미양

...안생략으로 사온다.

능

(또 끝) ...해.

미양

...야.

능

텔레비전을 보던 중, 무언가 이상한 권세를 느낀다. 만왕이 뱀 안를 둘러보는 중.
뱀을 쳐다보며 침을 꿀꺽 삼키는 미양.

아...아이다. 오빠 배고포게. 내 라면 줄 사오게.

미양

(텔레비전을 보며) 뭐하노?

능

미양. 피복 재킷 속에 뱀이 틀들만다.
뱀의 뒤에서 호신의 웃이며, 남자스킨이며, 의자에 넘어놓은 호신의 양말 등을 찢싸게 걷는
뱀이 텔레비전 드리누우며 리모콘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 중.
배시시 웃는 미양. 뱀이 눈치를 보며 피복 재킷과 호신의 속옷을 한꺼번에 움켜쥐어 든다.

S# 78. 능의 진 / 아침

(술자 음을 음원) 곧 배만 안 잤어도...

비양

그러자 다시 쓰러지는 비양.
꿈이 꿈을 단고 나가는 뚱.

(겨우 몸을 일으켜 다 죽어가는 소리) 환 가라 오빠야...

비양

부스럭대는 소리에 곡릉 문 비양.
꿈이 일어나 곧 북릉 듣고 진릉 나서는 뚱.
귀여운 속웃이 옆에 턱려 있고 이를 속 잔뜩어 있는 비양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창으로 들어오는 밝은 햇살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뚱.

S# 77. 뚱의 진 / 아침

호신을 보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비양.
다부지게 이를 앙물고, 다시 진 안으로 들어가게 비양.

랑았다 가께.

호신

(라면을 뺏고 다시 돌려보내며) 가라 가라. 그냥 가라.

비양

그때 랑았다. 할머니 랑해드려라. 그럼 내 가께.
(롤아가다 랑고) 아이다, 내가 인사를 뚱 드리는 게 안 녀웠다.

호신

오름은 오빠야 다를 테 가서 자야겠다. 내가 내일 전화할게. 랑았제?

비양

그래? 그럼 우짜노.

호신

S# 82. 지하철 / 님

수피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나온 동, 수피 앞에 서서 새 담배를 꺼 담배를 피다.
 그때 수피를 들어서 는 호신, 버나나 우방를 사서 나온다.
 훑김공를 사이에 두고 담배 피는 동과 나란히 서서 버나나 우방를 미시는 호신.
 관서 서포 곡이 마추치는 동과 호신.

S# 81. 수피 판 / 아취

대단이 없자, 조식조식 집 안으로 들어서 는 호신.
 수크대에 동 핸드폰만 챙겨 틀래 나오는 호신.

(작은 소리) 비앙아...

호신

조식스럽게 동의 집 공를 여는 호신.
 공를 빼공의 형어 고개만 내민 채 전 안를 찾판다.
 좌를 여는 비앙의 모습이 형린 공으로 보인다.

S# 80. 동의 집 / 아취

집에서 나와 계단 울로를 내려가는 동.
 그때 계단을 올라오는 호신, 계단 한가운데서 동과 마주친다. 울로가 끊어 서로 어깨를 돌리
 며 비껴서 지나가는 호신과 동.
 계단을 내려가다 인듯 호신을 올려다보는 동, 동한 표정으로 다시 계단을 내려간다.

S# 79. 동의 집 계단 / 아취

그러나 대단이 없는 동의 집.
 단강한 표정의 호신, 하는 수 없이 연립간물로 들어간다.

(작은 소리) 비앙아, ...비앙아.

호신

동 의 연립간물 앞를 서서는 호신.
 동 의 집 좌공를 향해 작은 물멍이도 던져준다.

.....

진아

터졌다?

(비꼬는) 그래? 그래? 뭐. 나 보다는 수업이 더 중요하지. 참하면 장학금

은혜(E)

수업 중이었어.

진아

이런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은혜(E)

마지못해 전화를 받는 진아.

전화 온 거 아냐?

경숙

못 본 척 무시하는 진아.

테이를 위해 진아의 전화가 또 다시 캄뻐인다.

수업이 끝나고, 실험도구를 정리하는 진아와 경숙.

Cut To

역정을 보고 번호를 확인하는 진아. 전화를 받지 않는다.

수업 중에 무음으로 캄뻐이는 진아의 전화.

실험실음이 한창 진행 중이다.

S# 83. 생물학과 실험실 / 낮

자막 : "사범"

진아, 뻔뻔한 척 하려하지만 금세 어수렁진다.

엄치 큰 사내 옆에 붙어 앉게 된 진아. 그런 진아를 무안하게 쳐다보는 엄치님.

강준명 커피를 보는 진아, 잠시 컸음하다가 옆으로 다시 옮겨 앉는다.

그때, 굳인 커피 한 잔이 옆에 와서 선다. 흥가 나온 강준명 옆과 그의 여자친구다.

붙어 보이는 진아, 조용히 한 잔 옆으로 옮겨 앉는다.

지하철이 역에 정차하면서 사람들이 타고, 엄치 큰 사내가 진아 옆에 앉는다.

좌석에 멍뭉히 앉아 있는 진아. 떠돌하면서 도 허전한 표정.

부근 형이야

진아

황리우 차림으로 나오면 진아야 마흔 살이 되

S# 84. 진아의 집 / 밤

진화 묻는 진아.
그런 진아를 보는 경숙.

(버려진) 만대포 생각해. 물어!

진아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또 대체? 지금 뭐 자랑 있는 거 아냐?

경숙(E)

범라구?

진아

야 너 새로하냐? 왜 이렇게 티격거려? 짜증나게

경숙(E)

안았으니까 나중에 얘기해.

진아

너 요즘 왜 그래? 면회 등 시간도 없고, 전화 편지 시간도 없고...

경숙(E)

그런 내인 해.

진아

있다가 못 해.

경숙(E)

지금 전화 틀어오고 있거든. 있다 전화해.

진아

진화해. 동기를 다 외박 나가고 나만 남았어.

경숙(E)

유치원을 쫓겨간 아이들 이야기는...

.....

기성

내가 은석이랑 만나면 너랑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마음 안했는데, 쟤네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기대하지 마.

진아

유치원 그만두면... 그때, 너네 둘 헤어졌으면 좋겠어.

기성

넌 내가 은석이랑 헤어지길 바래?

진아

애매하게 원한 품고 있는 거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돼.

기성

.....

진아

못하겠어.
두 사람 문제는 풀어서 풀 해결하면 안 돼? 나도 이렇게 더 이상은
미안하대. 뭐가 미안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안하대.

기성

...야?

진아

그 불은 은석이 가 주는 거야.

기성

진아에게 불을 떠안기는 기성.

이게 뭐야? 이러지 마. 너 앞으로 은석이 옆으로 어떻게 불려고 이래?

진아

(웃다) 불을 내미는 (이)가...

기성

던 여자 친구였잖아 새끼야.

민철

(안 듣고 버티는) 그러금 뭘 떤? 아이마 내도.

능

그런 거 아니다. 내내라 뭘리.

민철

야 이 뻘네. 야가 뜰아가?

능

(다시 뻘으려는) 가져 와.

민철

(사자를 본다) 무슨 사자이고?

능

민철은 홀담룸에 젖은 지갑에서 내용물을 꺼내 햇볕에 펼쳐 말리고 있다. 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띈다. 다른 팀원들의 얼굴은 물기에 물어서 움개쳐 있는데, 구석의 보람의 얼굴만은 물기가 단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있다. 사자를 넘겨 빼앗아가는 능.

그냥 그렇다고...

능

뻘 뭘 트렁이냐? 휴가 나가서 뻘 뭘 있었어?

민철

오겨든.

뻘은 안겨든. 뻘도 쪼매 느낌이 다르고, 의자도 뻘가 뻘라진 기 감이 아, 그러금 내가 커신란이 알아냈다 이야기. 내 포르게 한다포 해도 뻘 던 뭘고 있었겨든. 그런데 누가 내한테 뻘 안 하고 내차를 뻘 터쥘 나, 그 느낌이 아냐? ...옛날에 내가 배타를 뻘 했었는데, 그때 내가 뻘

능

홀담룸에 뻘복진 뻘복복음 듣고 있다. 나무그늘에서 야산에 계란후라이를 하고 있는 능과 옆에 있는 민철. 쉬는 시간.

다시 폼드리는 회법. 사서히 표정을 찡그리는 우성. 그때,

그편 나의 전... (또 켜이자, 이번엔 듣기 싫은 새봄으로) 그편 나의 전부, 그편 나의 공명, 헤어질 수 없어요~

오디션여

세 번째 지원자, 기본적인 응감은 있는 듯 곤란 하는 여자, 그동안의 진상을 보다는 한결 낫다. 서로 바라보며 끄덕이는 우성과 회법.

Cut To

다른 지원자, 켜이 자택 들어 R&B 음으로 비어브레이션을 지나치게 넘어 부르는 여자. 자 기 혼자 울에 빠졌다. 한숨을 쉬는 우성, 귀를 후비다 책상에 엎드리는 회법.

Cut To

(웬이 나갔다가 다시 정신 차린) 아, 수고하셨습니다. 연락...드리죠.

우성

자리에 앉아 있지만 뭔가 민생각에 빠져있는 듯 보이는 보람. 새 보람을 뽐는 오디션 중이다. 한참을 읽고 피로워하는 우성과 회법. 눈썹, 코, 귀, 입술에 수십 개의 피어싱을 하고 찢어친 듯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남자.

S# 86. 배드민턴실

새끼 까칠하거는.

보

애이 씨람, 물어내 이거!

민철

사건을 둘러주지 않고 까름암 거리는 보. 순간 화가 난 민철이 사건을 확 나꿔채는 바람에 사건이 쫓겨진다. 끝내기 씩씩해지고, 쫓겨진 사건 조각을 들고 무안해서 보는 보.

가 한다. 문밖은 들 되잖아 내가.

가는 인자 내가 아이이다, 야 괜찮네, 털기라. 전화번호 있제? 전화는 내

보

(랜드폰을 옆에서 멀리 하고 혼자 말하는) 저기 실례지만, 오승환씨 맞
아... 지금 막 도착했어. 커피숍이야. (사이) 미용실 갔다 왔어.

효정

서브러 나온 것처럼 청장을 차려입은 효정.
미미의 전화를 받고 있다.

S# 87. 시외버스안(이동) / 낚

...네?

민우

(멍하게 쳐다보는) 낚보람...

우정

(노래를 부는) 이렇게 머리 뒤쪽으로 소리를 띄우다 그 새까만 편편
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민우

편편이 안 들려. 민우의 노래.
자음서를 넘겨준다. 노랫소리에 잠깐 민우를 돌아보는 우정.
편편이 있던 화면도 서서히 몸을 일으켜 보람을 쳐다본다.

아프, 턱으로 북릉 누르라는 게 아니구요, 등... 이렇게요. (노래) 그편
나의 전부, 그편 나의 공명, 헤어질 수 없어요.

민우

아... (다시 해보는) 그편 나의 전부, 그편 나의 공명~

정다시아

턱을 그렇게 들고 하면 북에 생대박을 후사시키는 거거든요? 분명하
도 연결될 수 없어요.

민우

...네?

정다시아

턱을 아래로 당기고 해보세요.

민우

원재의 전 문록 연구에 서 있는 표현.

S# 89. 원재의 전 / 문

근 트럭 한 대가 표현의 양를 지나간다.
트럭이 지나가자 뽕뽕하게 일어나는 먼지.
먼지가 가라앉자 문도에 잔 표현의 표현.

그렇지 않아?
나이드 있으면서 애들도 아니고, 애를 참 인도를 해야지...
늦게 보내고 응? 만나서 뭘 하길래 도대체, 애가 아주 노랗게 띠어.
휴가 나왔으면 애를 뭉치게 해야 할 거 아냐. 새벽에 불러내서, 밤
이, 표정원가? 그렇잖아도 한 란 있었는데, 너무 한 거 아니야?

원재모(E)

저... 원재 있나요?

표정

여보세요?

원재모(E)

생각하다가 이단가로 전화를 거는 표현.

바원재 상병, 수요원에 휴가 나왔는데... 연락 안 하고 오셨습니까?

위병(V.O)

원재의 표현을 들로조면.
그 위로 위병의 목소리가 들린다.

S# 88. 누대 한 버스원표장 / 문

전화 끊는 표현.
표자리에 탄 아줌마가 이상한 눈으로 표정을 묻다.
립뿔을 손가락으로 짚어 입술에 바르는 표현.
차장 밖으로 곧바로 표지판이 스쳐지나간다.

오세요? (남자목소리) 네. (다시 자기목소리) 아 예... 안녕하세요?
(전화를 가까이 대고) 얼마 만났어. 있다 집에 가서 얘기해, 끝어.

그만하자. 나 피곤해.

원재

(기가 막힌) 뭐?

효정

쓰고 올잖아.

나 나와도 이제 귀찮다면, 그래서 연락 안 했어. 나도 나 때문에 안

원재

먹는 게 참 싫고 다닌다 너.

왜? 췌려? 지 버릇 개 못 쓴다더니 너 언제 췌를래? 그리고, 돈도 못

효정

지금 뭐 다 했어?

원재

왜 못해? 정말 그런 거야?

너... 혹시 뭐 여자 생겼나?

효정

됐어. 그만해.

원재

근 줄 있어? 나이 많잖아라더라. 내가 왜 그런 소릴 틀어야 돼?

너도 대체 뭐하고 다니니? 내가 옳게 니네 엄마한테 무슨 소릴 틀었

효정

.....

원재

너 이제 말도 안 하고 휴가 나오더라.

효정

(난처한 표정) ...헤어이야?

원재

효정을 발견하고 녹이는 원재.

효정, 원재는 표정으로 다가오는 원재를 쏘아본다.

잠시 후, 지쳐 보이는 원재가 보인다.

원재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쪽을 무척게 돌아본다.

(음운음운 음운음운) 아수하는) 배...

클립

라고 합니다. 환 부탁드립니다.

(나서며) 사진보다 실물이 더 아름다우시네요. (아수를 칭하는) 화음이

능

그랬구나. (옆에 선 능릉 표며) 근데 누구...?

클립

어 그레? 얼마 전에 우경과 만났거든...

민첵

원아만 가 주세요.

클립

민첵하며 민첵릉 보는데 클립.
민첵 앞에 있던 또 다른 남자(녹)가 영가주춤 일어나다.
민첵릉 보고 살짝 웃음이 번지는 클립. 민첵에게 다가가면,
안쪽에 앉아 있던 민첵, 클립릉 알아보고 반감게 손을 흔들다.
누리번거리며 돌아오려고 클립.
뛰어왔는지 숨을 고르는 클립, 커피숍 망리공에 비춰보며 머리모양을 만진다.
클립
클립
클립
클립
클립

C# insert : 비가 쏟아지는 커피숍 외경.

S# 90. 커피숍 / 너

표정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원재.

너 나한테 반말하지 마.

표정

돌아서서 가는 표정. 엄담하던 표정의 눈시렁이 돌아진다.
가다리고 민첵서 돌아서서

그만하자 그만해.
피곤해? 너만 피곤한 줄 알아? 그레 나도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표정

민철

커피숍 꿈을 박차고 나온 보람. 우산을 안에 두고 왔음을 깨닫고 다시 들어가려다 이내 돌아 서서, 씩어지는 빗속으로 뛰쳐나간다.
 세잔 빗줄기에 옷은 젖어틀고, 보람은 눈물을 참으며 뛰듯이 걷는다.
 뒤따라 나온 공 민철, 우산을 들고 뛰어와서 보람을 붙잡는다.

S# 91. 커피숍 앞 거리 / 날

황당하게 보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녹.

저기, 보람씨. 어디 가십니까? 보람씨! 아, 나~ 뭐 저런 거 다 있노?

날

상식한 듯 자려에서 일어나 나가버리는 보람.

오빠... 정말 잔인하다.

보람

민철의 뒷구리를 꼭 찌르며 웃는 녹.

래서...

(응황하는) 아, 뭐... 검사원사, 나 열론도 보고... 애가 하도 클르고 그

민철

환 람이 있다는 게, 소개팅 해준다는 거였어요?

보람

민철, 괜히 보람 열론용 미추를 수가 없다.

기가 막혀 민철을 툴어보는 보람.

...네!

보람

내가 민철이하고는 풀렸소 때부터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전일부터
 마가 보람씨 얘기를 나한테 자꾸 하더라고요, 나는 뭐라고 그러는데,
 야가 하도 한 번만 만나보라 그래가지고, 면면이 거절하는 것도 예의
 가 어이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날

S# 92. 잔아의 잔 / 님

모담을 잔지 못하고 밋속에 서 있는 민철.
민철을 깨울며, 민철을 뿌리치고 달려가는 모담.

(떨어진 우산을 잔아를고) ...우산 쓰고 가.

민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그러나 곧,
모담의 발을 되새기듯 울고 있는 모담을 울끄러미 보는 민철.
곧 때리는 밋속에서도 민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모담.

...모담아.

민철

(울먹이며 소리치는) 정말 모르겠어요? 차라리 줘요면 줘라고 해요!

모담

.....

민철

오?

(공포를 참지 못하는) 그때 오빠 면회하시... 내가 왜 그랬을 것 같아

모담

... (크는)

민철

내가 언제 소개팅시켜 봤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오빠, 모담은 착하는 거예요, 어떤 정말 틀려서 그래요?

모담

민철의 손을 뿌리치는 모담. 그 바람에 활쉴려 우산이 콘라틴어진다.

(다시 불잔아 새우고) 얘기 들 해.

민철

(뿌리치며) 이거 봐요!

모담

민철아

관심으로 권원의 장아양겨 보세요. 그윽조. 완 하사비요. 자 이편에는

표절

함나 환자에게 치포기구의 사용법을 진원하게 가르쳐주는 표절.

S# 92D. 물리치포실 / 낚

호신과 고스름을 치고 있는 비양. 호신이 썬 동를 면고 게임에 이긴다. 호신 머리에 쿡뎀을 세게 때리며 좋아하는 비양.

S# 92C. 농의 집 / 밭

겨용. 흥련 중 휴식시간.
뎀배를 영제의 꺼내 무는 곤인들.
뎀배, 뎀배를 피다가 예전 후에 취해 다쳤던 상처가 눈에 들어온다.
생각에 잠기는 민철.

S# 92B. 흥련장 / 낚

간만 흥에 멍하니 앉아 있는 밭.

S# 92A. 맨드연습실 / 밭

가뎀를 들고 대공을 나서는 잔아.
우체부 오토머기가 평직에 우편물을 넣고 잔아 흥을 지나간다.
우체부 밖으로 여러 울의 우편물이 빠져나와 있다.
휴여있는 우편물을 꺼내 보는 잔아.
각중 고지서와 편축물들.
고지서 사이에 구겨지고 먼지 낀 군사우편 두 울이 끼어있다.
울퉁에 적힌 은석의 이름을 보는 잔아.
예전 잔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감흥하고 안타까운 표정의 잔아.

(S# 92D까지 오타쿠 시퀀스)

(태연의 노래를 들으며) '이, 여기 하나 있다'

재현

를 자꾸 가지고 그래요!

효정

재현, 이것저것 꼬집어내는데, 하트 무늬의 여성스러운 스타킹이 푸른 뿔나뭇잎이다.

없어요.

효정

(군중바스를 옆에서 안중 밖에서는) 태연의 노래는 무슨 노래? 아니냐?

재현

네?

효정

(문밖에서) 음악 들죠.

재현

어색한 분위기의 두 사람.
공전하는 효정과 그 옆자리에 앉아 탄 재현.

S# 94. 효정의 차(이동) / 저녁

전면주차 되어 있는 효정의 차.
차안의 효정, 기어를 넣고 천천히 후진해서 차를 빼다.
왼쪽 사이드미러를 주시하며 계속 후진하는데, 갑자기 '웅' 부딪치는 소리와 함께 뭔가가 바퀴
에 깔린 느낌이 든다.
특히서 돈을 킁근 걸었다 또는 효정. 건넌면은 표정으로 조심스레 뒤를 살핀다.
차에서 내리는 효정. 차 뒤로 가면, 뒷바퀴 밑에 자전거가 넘어져서 깔려 있다.
때마침, 자전거 옆쇠를 꺼내며 나오던 재현. 바닥에 깔려 찌그러진 자전거를 발견한다.
미안한 얼굴로 재현을 보는 효정.

S# 93. 병원 마담 주차장 / 저녁

원천의 내릴게요. 그렇지요. 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침대에 누워 뒤척이고 있는 진아.
 그때 창밖에서 '타닥 타닥'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뭘가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여는 진아.
 창밖을 보면, 집 앞 의류수가 한 열 둘 만의 사각지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장식을 사이에
 서 수십 개의 폭죽이 불꽃을 뿜으며 요란하게 터지고 있다.
 그 와중에 종이로 만든 'HAPPY BIRTHDAY' 불렌카드가 하트모양으로 수놓은 꽃물에 불꽃이
 뿜겨 붙어 활활 타들어가고 있고, 은색은 그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다.
 그런 은색의 모습에 침착한 진아의 진아.

S# 95. 진아의 밤 / 밤

여긴 우리 동네 가는 버스 없어요.

재현

버스 타는 데 내려달라면서요.

효정

좀 더 태워주면 안돼요?

재현

(효정씨는 라는 말에 재현을 보는) ... 어디서 내려줘요?

효정

효정씨는 어떤 음악 좋아해요?

재현

효정, 재현의 지나치게 껌은 목소리에 피식 웃음이 나온다.

사는 건 타고난 똘까지만

(웃는) 누가 물어 봤나요? (노래를 따라서 흥얼거리는) ♪ 관 산고 못

재현

...엄마 께요.

효정

파 만만 이었어~

♪ 무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생애 최고의 선물 무신

태진아(E)

태핑을 데크에 집어넣는 재현. 신나는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온다.

이유가 뭐야? 갑자기 왜 그래 너?

은석

.....

진아

이...?

은석

.....

진아

이...?

은석

(결심한 듯) 헤어져. ...그냥 그렇게 헤어져.

진아

매하고 우리 커플 시계 맞추자. 안맞지?

...너 선택을 없다고 그러는 거지. 안맞아 안맞아... 품만 기다려봐. 나 제

은석

...우리 헤어지자.

진아

너 왜 아까부터 말이 없어. 무섭게 시리. 품 놓으라 생일탑인데.

은석

(은석의 모습을 아포게 바라보는) ...

진아

안아줘야 돼. 아?

(조금 과장되게) 아 씨, 내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땀 흘렸는지 아
나? 품이 딱딱한데 새끼한테 얼마나 비벼줬는데. 너 그거

은석

편의점 앞에 놓인 푸른색 테이클에 많은 진아와 은석.

(대담을 듣지도 않고) 내가 이 집 십년 단골인데, 여기가 고기도 많이
워어주고, 국물이 진해요. 콜라겐이 빼랑 피부에 좋은 거 아시죠? 소
머리에 또 이게 많거든요. 비타민C랑 칼슘이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되요.

재현

응...

표정

맛있죠?

재현

손가락으로 북적거리는 오래된 국밥집 안.
주름소리와 대담하는 아줌마 소리에 정신이 없다.
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는 재현과 표정.

S# 97. 소머리국밥집 / 낮

기성의 역삼을 잡았던 손에 힘이 빠지는 은석, 뒤 나간 표정으로 진아를 본다.
할 람을 다 한 듯 은석을 보는 진아.
영웅이 터진 기성.
그리고, 가게 안에서 유리벽 너머로 그를 바라보는 보람.

나 이제 너 안 좋아해.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

진아

(진아를 돌아보는) 진아야...

은석

오바하지 마. 그거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 아냐. 그냥 다 지켜워. 보고
싶을 때 못 보는 것도 지켜워, 전화로 멘탈 짜증내고 싸우는 것도 지
켜워, 윗가 때 뭐할 지 고민하는 것도 지켜워, 안 반가운데 반가운 채
하는 것도 지켜워.

진아

흥분한 은석은 기성이를 노려보며 씩씩거리고

그만해!

진아

갑작스런 소란에 카운터에서 일하던 보람이가 밖을 내다본다.

말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나 좀 봐봐.

말

(복잡히 일만 하는)

말

나한테 화난 거 알아,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만 두는 건 아니야.

말

년장고 안에서 전열대에 응포수를 재워 넣는 보람.
년장고 밖에서 응포수캔 들으르 보이는 보람에게 얘기하는 중이다.

S# 98. 편의점 안 / 밖

편의점 안

웃는 얼굴로 표정에 꽃을 내민다.

이전 원을 주고 꽃을 뺏다시피 하는 재현.

며) 이전 원에 파세요.

단가가 오백 원 밖에 안 하는데 (지갑에서 원 한짜리 두 장을 꺼내주
네? 무슨 꽃 한 송이가 오천 원이나 해요? 너무 사기다. 꽃집에 가도

재현

오천 원이네요.

할머니

(안짱은) ...

표정

하하, 참 할머니 장사 참 하시네. 얼마예요?

재현

사모님이 참 예쁘시네요. 한 송이 사세요.

할머니

그때, 꽃 파는 할머니가 다가온다.

파 많이 물어서 드세요.

한강 상류 쪽 변두리엔,
원형로 훑지어 가는 자전거, 안좌 위에 엉덩이를 깔은 박자로 좌우로 움직인다.
뜨롱 뜨롱 들리리며 북동향을 다해 패들링을 뱉는 호젓,
속도를 늦추며 호젓 품으로 다가온 재현.

Cut To

근간한 표정의 호젓, 재현에게 뭐라 말하려는데 사람들을 이끌고 출발해버린다.
사람을 믿어지지 않자 더 뽕뽕한 호젓,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간다.

(큰 소리) 재현

재현

카메라 빠지면 몸에 딱 붙는 사이클복장을 입은 재현과 호젓,
그리고 사이클 동호회 사람들.

(웃는) 호젓은) 호기역학적으로 좋은 거예요.

재현

무이렇게 믿어야 해요?

호젓

마추 선 호젓과 재현.

S# 99. 한강 고수부지 / 낚

외면하고 일을 계속하는 보람.

.....

민철

...그만 가요.

보람

보람아,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잖아.

민철

거 불편해요.

(일름 멈추고) 오빠, 나 이제 음악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오빠 보는

비망

비망, 비망에 배를 깔고 누워 만화책을 본다.
그 꿈에서 잠자를 보고 누공 호신, 영원 만화책을 가슴에 품고 문틈의 생각에 잠겨 있다.

S# 102. 동이의 진 / 낚

의류수거함에 은색의 잠바를 넣어놓는 진아.
예전에 은색과 함께 쓴 담벼락의 많은 표식을 보는 진아. 조금 색이 바랬다.

S# 101. 진아의 진 / 낚

은색(V.O)
들어올 때 추를 가져. 입고 가.

잠바를 펴보는 진아.
서랍에서 옷을 꺼내다가 문득 은색이 벗어준 잠바를 발견하는 진아.
옷장을 정리하는 진아. 여름옷을 넣고, 가을옷과 겨울옷을 꺼내는 중이다.

S# 100. 진아의 밤 / 낚

표원
(아이없지만 말한 적이 없다) ...

재현
물만 기다리세요.

아름마
국수 언제 먹게 해줄 거야?

사내
재현씨, 여자친구 너무 쁘긴다.

표원 바로 옆에 가던 사내와 아름마. 한 마디씩 거른다.

재현
이제 표원씨도 매주 나오세요. 이제 30대면 건강관리 해야죠.

너 진짜로 내 편일까?

응

응. 근데 너도 나를 의심하지 마. 내가 너를 의심하는 건 아니야. 그냥 너도 나를 의심하지 마. 내가 너를 의심하는 건 아니야. 그냥 너도 나를 의심하지 마.

103. 나의 내무실 / 너

(영그리지는 표정) 내가 문 닫아 줄까?

미안

기다릴 거예요?

응

미안, 늦게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응

왜? 근데 왜 그래요?

미안

아,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응

응?

미안

(미안하게 웃으며)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응

그럼 우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안

(말한다) ...안녕하세요.

응

죄에서 보충할게요. 미안해요.

(배사시) 우편 읽은, 오빠야 보고 싶어서 왔지.

비영

우편 읽고 나가?

동

노릇이 심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비영. 그 앞에 시큰둥하게 앉아 있는 동.

S# 104. 면회실 / 낮

(아니꼬공 표정) 만년에 관 주책이십니다.

강림범

누구? 나가?

동

응성! (전란받고 돌아와서) 허우 범자던... 면회왔습니다.

호신

(복도, 행정반 앞에서) 1소대 만년 면회왔다. 이상.

형적하사

2내무실!

호신

이때 내무실 밖 복도에서 '전란!'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면회실 안에서 뛰어나가는 호신. 곧 앞에서 서서 형적하사의 전란을 받는다.

됐다, 빨리이나 해명들란다.

동

무퇴직에 양배추김치, 중국입니다

강림범

(강림범에게) 풀맨아, 잠깐 뭐냐?

(가웃하는) 문명히 안면이 있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네.

동

이별 송, 호, 신! (결론질로 힐끗 보고) 관 모르겠습니다.

호신

회능 변자던.
예 양됐습니다. (어머니에게) 양마, 여긴 우리 소대 제임 고찰던,

호신

됐다, 양아 양아.

능

미양, 활근히 순가탄으로 영론를 가리다.

(를어오다 능릉 보꼬 울성)

호신

하 그라노?

능

이때, 면회신 안으로 를어오는 호신.
어까 미양를 쳐다보던 그 가족를, 호신를 보고는 반갑게 맞이한다.
면회신를 를어사는 호신을 양어보고는, 활근히 영론를 가리는 미양.

랑양아 내, 아무거나 랑 푸는 거. (배사시)

미양

너한테 뭘 바라겠노, 만능 룸래?

능

차비밖에 없는데...

미양

빈손으로 왔나?

능

고3이라는 소리에, 폼 테이블에 앉아 있던 가족원행이 미양를 쳐다본다.

신경을 못 썼다 아이가.

내가 언제? 그런 거 아니다. 고3이라서 좀 바빴잖아. 그래서 오빠한테

미양

왜? 새로 포신 들이 왔다고 도망가드나?

능

그렇구나.

진아

아니 아저... 말년 후가.

은석

제대한 거야?

진아

담소를 나누며 복도를 걸어오는 진아와 은석.
교무처 앞에서 계시판을 보고 있는 은석을 발견하고 멈춰서는 진아.
은석도 진아를 발견한다.
모르는 척 자리를 피해주는 은석, 교무처 안으로 들어간다.

S# 107. 학교 교무처 앞 / 낮

사장, 우성의 베이스를 뺏으려 달려들지만, 요리조리 피하면서 연주를 계속하는 우성.
개미치 않고 노래를 끝까지 부르는 민철.
기가 먹혀서 웃음이 나오는 보람.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남의 가게 앞에서!

사장

보람, 기가 먹힌다.
뒤늦게 나온 편의점 사장이 맨드를 제지하고 나선다.

(노래) 오 그대여 이 한 마디 잊지 말아오~
나는 오 외 그대만을 사랑한다는 걸~

민철

우리한테 너 밖에 없어!

우성

(노래) 지금까지 나를 정말 사랑했다고

민철

(연주하면서) 보람아 같이 하자!

우성

왜요? 안 돼요?

재현

고객들로 만족한 1층 로비,
현금인출기 앞에 선 효진, 카드를 넣고 돈을 찾으려는데, 울자장리가 필요해 인출이 불가능함
나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
다시 시도하려는 효진 옆에 재현이 다가온다.

S# 108. 결혼식장 / 낚

가는 은석의 뒷모습을 보는 진아, 꼬무쳐 안으로 틀어간다.

그래.

진아

(팬히 시계를 보고) 관개, 또 보자.

은석

대화가 끊어져 다시 어색한 분위기.

그래...

은석

신원교수님 수업은 웬만하면 듣지 마. 학점 되게 짜.

진아

아니. 지금 한려구.

은석

(은석의 손에 든 서류를 보고) 수강신청했어?

진아

딱히 한 려가 없어 어색한 분위기.

아.

진아

...머리 바꿨네?

은석

네? 우리 사이요?

표원

에이... 우리 사이에, 됐어요.

재현

...돈은 배워 드릴게요.

표원

표원은 재현을 좋아하는 표원.

오른 선부화장이 예뻐서, 표원한테, 표원한테도 거기가 하는 게 어떤가요?

재현

표원 공전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는 재현.

S# 109. 표원의 차(이동) / 낮

다시 할게요, 조금 쉬 하세요.

사진사

신부가 던진 부케가 영동에게 표원에게 넘어간다. 어떤 표원에 부케를 받은 표원. 사람을 쳐다보고, 재현 혼자 신나서 박수친다.

하나, 둘, 셋!

사진사

특이한 친구들 앞에 턱시도를 입은 현준과 부케를 던진 준비를 하는 신부가 있고, 친구 부케를 받기 위해서 있다.

Cut To

(마들랑은) 편찮아요.

표원

제가 드릴게요.

재현

왜 이러지.

표원

(민첵에게) 노래 부를 사람이 없으면 진작에 얘기를 하지, 나한테.

하나

그런...

모름

지나주에, 내가 우리밴드 보컬이라며? 정말 좋잖아?

하나

연제... 좋아하나요?

모름

보람이 오랜만이네.

하나

밖으로 나오다가 들춰 보라는 보람.
를림 앞에서 팀원들과 함께 있던 하나, 보람을 본다.

S# 111. 를림 앞 / 밤

세면기 앞에 선 보람. 우형철선원 포장을 뜯어서 입에 넣고 삼킨다.
목이 메어 가슴을 치며 겨우 삼키는 보람, 손을 씻고 나간다.

S# 110. 흥대 클럽 화장실 / 밤

표정의 기세에 꺾소리 못하는 재현.
뒤따라오던 차들이 뺄뺄거리고 욕을 하면서 지나간다.

무슨 소리에요? 내가 연제 재현씨랑 결혼하겠대요?
내가 무슨 소예요? 왜 자꾸 묻고 가세요?

표정

갑자기 차를 끼익 세우는 표정.

근데, 부모님한테 인사는 언제쯤 드리는 게 좋을까요? 만 나중 권에
다음 주 어때요?

재현

조문:

문답

간원 때?

문답

조조해 하는 보람에게 다가서는 민첩.

S# 113. 를 달님 무대 뒤 / 뒤

달님인 줄을 안다면, 달님인 줄을 전리하는 표현.
달님인 줄을 안다면, 달님인 줄을 전리하는 표현.
달님인 줄을 안다면, 달님인 줄을 전리하는 표현.
달님인 줄을 안다면, 달님인 줄을 전리하는 표현.

S# 112. 은행 / 뒤

달님인 줄을 안다면, 달님인 줄을 전리하는 표현.
달님인 줄을 안다면, 달님인 줄을 전리하는 표현.
달님인 줄을 안다면, 달님인 줄을 전리하는 표현.
달님인 줄을 안다면, 달님인 줄을 전리하는 표현.

그만 돌아가서 준비하자.

문답

민첩을 보는 보람.

(원문이 막혀서 보는)

문답

옛날에 내가 안다면 보람이 아니다.

문답

뒤?

문답

너 보람이 노래를 어떻게 했어? 없잖아. 할부로 만하지 마.

문답

특러는 효정.
이편에는 한머덕 전체에 깨랑 큰공 큰씨가 채워져 있다.
좌지좌~다음 페이지가 정리되고 밖으로 나오는 울정.
의아한 듯 또는 효정, 페이지를 넘겨 다시 인출기에 넣는다.

2007/ 10/ 01	자기보고싶어	1,000
2007/ 10/ 01	차보도안람구	1,000
2007/ 10/ 01	이편람에제대	1,000

.....

한 페이지 정리가 끝나고 인출기에서 다시 나오는 울정.
다음페이지로 넘기려다가 이상한 큰씨를 발견하고 또는 효정.
페이지 가장 아래쪽 인출근 내용에 문자메시지 같은 짧은글이 찍혀 있다.

S# 114. 은행 / 밤

웃으면서 또는 웃성과 희범.

이런 장것들을 보게. 운영 안 한 거야?
웃성

보람에게 다시 키스하는 민철. 린고 부드러공 입맞춤.
이때, 어디선가 나타난 웃성과 희범.

(웃는) 아작 긴장이 킬 풀어진 것 같은데.
민철

민철의 머리를 문어다가 키스하는 보람.
짧은 키스 후에 다친한 곡림포 민철를 바라보는 보람.

응?

민철

보람
알았어요. 나 긴장 풀어도 되죠?

민철
한나가 뭐라 그러는 신경쓰지마. 한 한 거야.

원프스타일의 버텐더에게 맥주 두 병을 사는 것이. 한 병을 왼쪽에 건넵니다.

S# 115. 흉대 를 립 / 립

나 립 새끼...

표 립

갑동 립은 표 립, 자기도 모르게 녹 립이 흐 립다.

C# : 피시 립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표 립에게 립을 쓰고 송금하는 원 립.

...이 립 내가 그 동 안 공대 에서 립 립 받은 거 안 쓰고 포 은 거야. 립마 안 되 립만 나 응에 우리 권호 해서 립 립 때 보 테자. 제대 해서 나가면 더 립이 립어서 자기 호강 시켜 줄 게. 약 속 해. 사 랑 해.

원 립 (Na)

을 장 의 립 립 원 어 가는 표 립. 페 이 지 를 넘 긴 다.

C# : 원 립 전 앞 에서 립 면 으며 립 어 가는 표 립 의 뒷 모 음 을 훑 으 하 게 마 라 보 는 원 립.
C# : 첫 후 가 때 립 립 에서 인 주 가 나 온 후 에 표 립 의 어 누 공 표 립 립 립 피 고 격 정 하는 원 립.

C# : 운 사 장 에서 립 립 립 립 립 립 하 고 있 는 원 립.

원 립 의 나 래 이 션 중 에 보 여 지 는 인 터 켓 장 면 립.

그 때 연 락 안 해 서 미 안 해. 나 도 자 기 보 고 립 은 거 립 고 후 가 나 가 서 립 래 립 마 립 관 거야. 그 동 안 나 때 문 에 돈 많 이 췌 립야. 안 그 립 립 췌 했 지 만 나 도 미 안 했 어. ...

원 립 (Na)

2007/ 10/ 01	1,000	하 는 데 정 립 안
2007/ 10/ 01	1,000	틀 거 야? ㅋㅋ
2007/ 10/ 01	1,000	그 때 연 락 안 해
2007/ 10/ 01	1,000	서 미 안 해...
2007/ 10/ 01	1,000	나 도 자 기 보 고
2007/ 10/ 01	1,000	하 은 거 후 고 후
2007/ 10/ 01	1,000	가 나 가 서 립 래
2007/ 10/ 01	1,000	림 바 립 관 거야
2007/ 10/ 01	1,000	그 동 안 나 때 문
2007/ 10/ 01	1,000	에 돈 많 이
2007/ 10/ 01	1,000	하 지 나

원재

그러나 그다지 즐거워 보이지 않는 원재.
그때, 원재의 어깨에 곡이 곡이 표정의 모습.
스쿠터를 옆에 세워놓고, 표정 시원스런 곡원 원재를 바라본다.

아... 씨마 원재야. (기쁨의 환호성... 난리다)

전역자를

원재를 포함한 대역섯 명의 전역자들, 종이가방 하나씩 들고 걸어 나온다.
위범소를 통과하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을 만끽하는

S# 116. 원재의 부대 안 / 날

한편, 리듬에 맞춰 신나게 뛰면서 몸을 흔들리는 진아와 경숙. 열광하며 소리를 지른다.
또가공 반응에 연주자를 절로 신이 나고, 보람과 민첩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는다.

우와~ 저 오빠야 려이다.

비영

정적은 깨는 기타소리. 민철의 기타 울로를 린두포 우성의 드럼과 희범의 베이스가 가세하여
신나는 무대가 시작된다.
리듬에 맞추어 몸을 흔들리는 젊은이들.
이어서 매력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하는 보람. 젊은이를 열광한다.
관중 속에서 환호하는 비영과 새 녀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포 밴드입니다. 2년 만에 돌아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민철

무대 위, 마이크를 잡은 민철.

Cut To

사람들을 비치고 돌아가는 진아와 경숙.

저기 안쪽으로 돌아가자.

진아

End Credit

F.O

그 바람에 기우뚱 흔들렸다가 겨우 중심을 잡는 스쿠터.
“던져진 뺨 봤잖아” “야 공전 똑바로 해” 이런 소리를 듣고 씩어지는 스쿠터.

효정 (원제를 확 믿지는) 내가 미쳐 진짜?
원제

(점먹고) 아너... 3년. 3년 안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취직할게. 그때
그런 자기 뭘 찾아지?
원제

(손흥 불러서) 원제를 보는? 뭐? 4년?
효정

나를 망치고 싶어서 4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기다려볼 수 있지?
원제

효정 예?
원제

원제 자기야.
원제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스쿠터.
군복을 입은 원제가 앞에 타고, 원제의 가슴을 꼭 껴안고 행복한 표정의 효정.

S# 117. 꼬위 도로 / 날

주위의 전역자들, 부러운 듯 보면서 함께 기뻐해준다.
키스하는 두 사람.
와락 껴안고 행복해하는 원제와 효정. 꼭 붙어안고 돌아주지 않는 원제

원제...! (효정에게 달려간다)